

7 July 2020
Vol.343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⑫

매실

특집좌담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공공 공연장의 미래를 전망하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사진제공_ 국립극장/국립창극단>

선종 10주년,
아직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제19회 부산사랑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예술감독 오충근(지휘)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협연 정혜옥(소프라노)

설은경(소프라노)

김성진(테너)

김중표(바리톤)

이일세(첼로)

특별출연 용마코러스

사회 정희정(KNN 아나운서)



2020. 7. 24(금) 7:30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문의 ^{(사) 부산사랑} 이태석기념사업회 <http://www.johnlee.or.kr> 051.637.0125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후원

무료관람응모 **NAVER** 부산사랑이태석기념사업회 <http://www.johnlee.or.kr>

* 본 공연은 '2020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행사보조사업'으로 음악회 후원금과 출연인 재능기부로 개최합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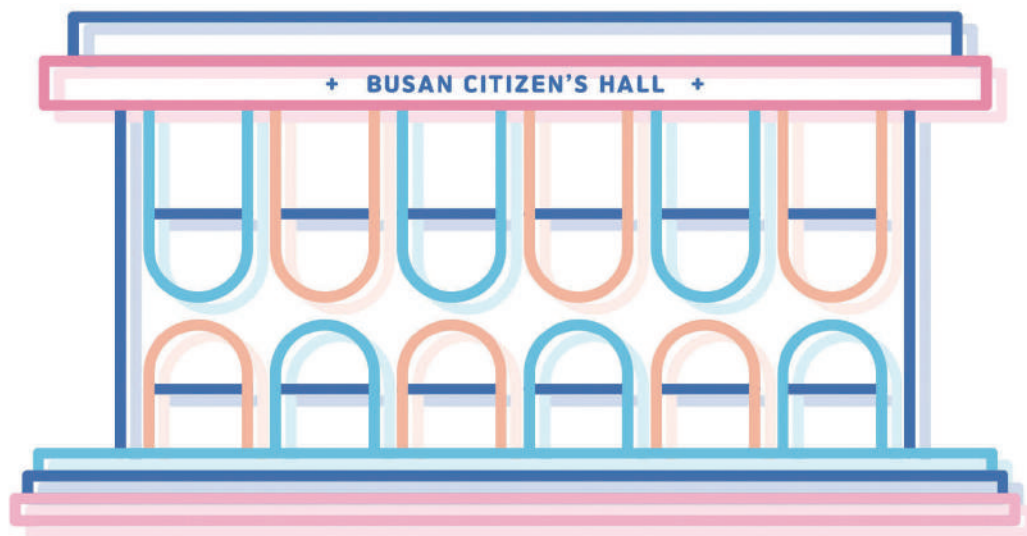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개관 다시 뛰는 부산 # 시민희망음악회

< 베토벤: 운명 속의 거인, 희망을 노래하다 >

L. v. Beethoven



“코로나 극복에 애쓰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일시&장소 | 2020. 7. 3.(금)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출연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최수열, 이기선 **피아노** 유지수

프로그램 L. v. Beethoven - Symphony No.5 in C minor, Op.67(교향곡 제5번) / L. v. Beethoven - Choral Fantasy in C minor, Op.80(합창환상곡) / 태평소와 풍물놀이

전석 초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신 의료진, 소방, 경찰, 기부자, 지역 상공인, 방역관계자 등

✿ 부산시민회관은 부산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

★ 202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재 개 관 특 집

Since
1973~



Re-opening
~2020

7/3
베토벤:운명속의거인,
희망을 노래하다



8/29
2020 디즈니 인 콘서트



9/12~13
뮤지컬 '변개맨'



10/24
2020 케니 지
월드투어 콘서트



11/21~22
뮤지컬 '광주'



12/12
K-JAZZ와 만나는
주현미 '러브레터'



12/19~20
무작전설
이승환 30주년 콘서트



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문의 /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OPERA

RA

The 6th Eulsukdo Opera Festival

제6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코로나19 한시적 이벤트 50% 할인
(단, 인터파크 예매시)

비제 오페라
〈카르멘〉

(사)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

7.4.(토) 오후 5시
대공연장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사) 경상오페라단

7.11.(토) 오후 5시
대공연장

로시니 오페라
〈신데렐라〉

(사) 경상오페라단

7.11.(토) 오후 2시
소공연장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사) 이지무스오페라단

7.17.(금) 오후 7시 30분
7.18.(토) 오후 5시
대공연장

오페라 갈라콘서트
〈오페렐라 발헬리아〉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7.25.(토) 오후 2시, 6시
대공연장

2020.7.4.-7.26. 을숙도문화회관 대소공연장

생활 속 거리두기
←한 칸 띄어 건넌않기 좌석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 연극의 해
부산시립극단 제67회 정기공연

갈매기

Anton Pavlovich Chekhov



2020. 7.3 금 - 7.12 일 평일 19:30 주말 17: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Anton Pavlovich Chekhov 재구성·연출 김지용

조연출 이현우 음악감독 전현미 무대디자인 황지선 음향감독 홍중민 조명디자인 조세현 의상디자인 박신미 분장디자인 이지원 도라마티그 강태욱 무대제작 진승휘 무대감독 정순지 기획·홍보 배정희 박지현 배우 이현주 황창기 이혁우 김은옥 김은희 배기철 서보기 염지선 오희경 정마린 강승환 박인화 신철용 우성주 우재원 윤준기 이은주 조윤정

주최  부산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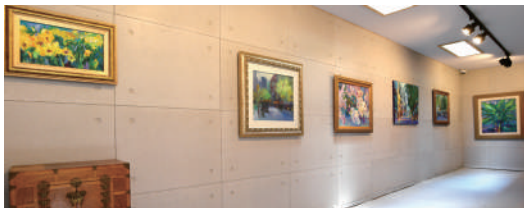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티켓 | 전석 20,000원 문의 | 051-607-6000 중학생이상 관람가

CONTENTS

7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July 2020 Vol.343

2020년 7월호 통권 343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0년 6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08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12 Column

박쥐를 생각하다

14 Poem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⑫
매실

16 특집좌담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공공 공연장의 미래를 전망하다

28 반갑습니다

제21회 부산문화대상 수상한 음악평론가 정두환

30 골목에서 만나다.생활 속 문화공간

한데 어울러 달리 가는 길을 찾다 '인문학당 달리'

32 Academy Class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베토벤의 삶과 음악'

34 Preview

44 Issue

제15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46 Review

50 Program Guide

59 New Book

60 BSCC News

66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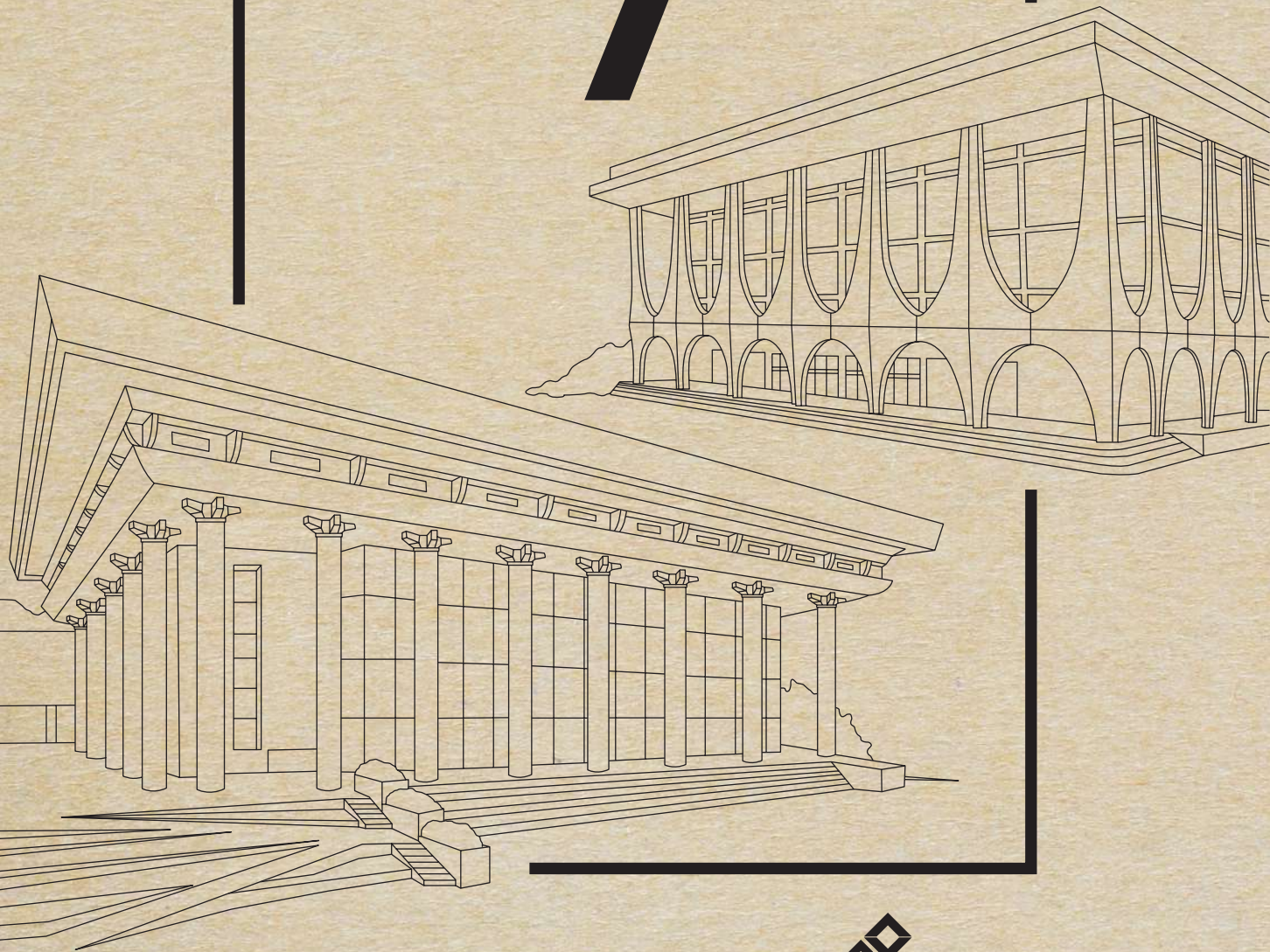
BSCC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2020 July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 월간 공연 & 전시 일정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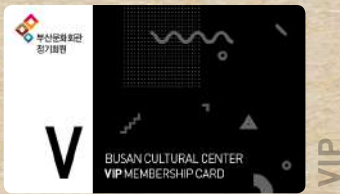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116~7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SUN	MON	TUE	WED
<p>부산시민회관 전시실</p> <p>김태선 수목화 개인전 6월 29일(월)-7월 5일(일) 1층 전시실/김태선 010-5279-0981</p> <p>한국경석회 34회 회원전 7월 9일(목)-7월 11일(토) 1, 2층 전시실/한국경석회 010-8541-9711</p> <p>전국한필서예작가전 7월 13일(월)-7월 19일(일) 1, 2층 전시실/전국한필서예작가회 010-7756-5636</p> <p>제34회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사진공모전 7월 28일(화)-7월 31일(금)/(사)부산사진작가협회 631-4111</p>			
<p>5</p> <p>◆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17:0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3) 양상블 자비에 제4회 정기연주회 18:00 첼 전석 3만원/양상블 자비에(010-4006-0059)</p>	<p>6</p> <p>◆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19:3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3)</p>	<p>7</p> <p>◆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19:3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3)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로망스' 19:30 중 전석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8</p> <p>◆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19:3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3)</p>
<p>12</p> <p>◆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17:0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3) 부산예술가곡 희망콘서트 17:00 중 초대/부산예술가곡(010-3884-4623)</p>	<p>13</p>	<p>14</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20:00 중 1만원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4)</p>	<p>15</p> <p>강민정 피아노 리사이틀 첼 전석 2만원/아트뱅크</p>
<p>19</p> <p>김주원 피아노 귀국독주회 19:00 첼 김주원(010-2401-1133) 2020 제38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B급 로타리 '저널리즘' 16:00 소 전석 2만원(6작품 통합관람권 5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20</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얼씨구 樂' 10:30 [단체관람] 대 부산시립예술단(607-3110)</p>	<p>21</p> <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5회 정기연주회 '이탈리아 음악휴가'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22</p>
<p>26</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서울발레시어터 '한 여름 밤의 꿈' 15:00 중 5만원 3만원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0 제38회 부산연극제 및 경연참가작_극단 이야기 '적산가옥' 및 폐막식 16:00 소 전석 2만원(6작품 통합관람권 5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27</p>	<p>28</p>	<p>29</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ED	THU	FRI	SAT
1	2	3	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30 [단체관람] 중 부산시립예술단(607-3110) 2020 부산음악축제 I '신인음악회' 19:30 첼름 초대/(사)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시립합창단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19:3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3)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30 [단체관람] 중 부산시립예술단(607-3110) 김연정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첼름 초대/김연정(010-6844-2533)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19:3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3) 부산음악축제 II '사랑_시대를 초월한 가치' 19:30 첼름 초대/(사)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개관 기념 시민화랑음악회 19:30 대 초대/(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우리는 친구다' 10:00 소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17:0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3) 2020 NEW 아티스트 펠리시 with KNN방송교향악단 17:00 중 초대/KNN방송교향악단(850-9568) 제7회 앙상블 게네랄파우제 기획연주회 17:00 첼름 전석 1만원/(주)게네랄파우제(463-392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우리는 친구다' 11:00, 15:00 소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3	9	10	11
정기공연 '갈매기' 19:30 극단(607-3123)	부산시립합창단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19:3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3)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30 [단체관람] 중 부산시립예술단(607-3110) 김연정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첼름 초대/김연정(010-6844-2533)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19:3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3)	부산시립극단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17:00 대 전석 2만원/부산시립극단(607-3123) 피아니스트 제갈삼 교수 기네스음악회 17:00 중 초대/부산문화(1600-1803)
5	16	17	18
19:30 코레아(442-1941)	BCMS와 함께하는 생상스와 브람스의 밤 19:30 중 전석 2만원/부산문화(1600-180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국립합창단 '변강쇠 점 찍고 용녀' 19:30 대 7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테너 조운환 독창회 with Friends 19:30 중 5만원 2만원 1만원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국립합창단 '변강쇠 점 찍고 용녀' 15:00 대 7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0 제38회 부산연극제 개막식 15:30 경연참가작_극단 B급 로타리 '지널리즘' 16:00 소 전석 2만원(6작품 통합관람권 5만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2	23	24	25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_2020 Summer Fantasy 'Romantic Concert-김동률 편' 20:00 대 2만원·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	제9회 부산사람이태석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대 초대/(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	UKO오케스트라 제48회 사랑나눔음악회 17:00 대 UKO오케스트라(988-308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서울발레시어터 '환여름 밤의 꿈' 15:00 중 5만원 3만원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0 제38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_극단 이야기 '적산가옥' 16:00 소 전석 2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9	30	31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 'Odysseia FE2020b _녹(綠)Knock'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 'Odysseia FE2020b _녹(綠)Knock' 19:30 대 전석 1만원/부산시립무용단(607-3121)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박찬민 아나문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바이올린 로망스-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11:00 중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예술동행 에나드리 '음악꽃이 피었습니다' 11:00, 13:30 [단체관람] 대 예술동행 에나드리(010-4002-9979)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어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19:30 소 4만원·3만원 2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사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 변강쇠 점 찍고 옹녀

국립창극단 

6년 연속 매진, 객석점유율 90%를 자랑하는 국립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가 부산을 찾는다.

지난 2014년 초연된 국립창극단의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잃어버린 판소리 일곱 바탕 중 하나인 '변강쇠타령'을 요즘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애뜻한 사랑 이야기로 각색, 매년 국내외 무대에 오르며 국립창극단의 대표작이자 창극계 스테디셀러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고전을 유쾌하고 기발하게 재해석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고선웅이 극본을 쓰고 연출한 이 작품은 외설로 치부되던 '변강쇠 타령'을 오늘날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격조 높은 사랑 이야기로 풀어냈다. 무엇보다 변강쇠에게만 맞춰져 있던 시선에 '점'을 찍고 옹녀를 주인공으로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원작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기구한 팔자로 비극적 결말을 맞았던 옹녀가 극중에서는 운명에 굴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사주에 청상살, 상부살이 얹혀 덮쳐 여섯 서방을 보낸 옹녀, 남자들의 잇따른 죽음의 원인을 옹녀 때문이라고 여긴 마을 사람들 때문에 옹녀는 마을에서 쫓겨나 우연히 황해도 청석골에서 변강쇠를 만나 신방을 차린다. 어느 날 땀감을 구하러 갔던 변강쇠가 장승을 뽑아오고 이 바람에, 장승의 신들에게 분노를 사게 되면서 세상만병을 얻고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판소리 원전에서는 상부살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옹녀가 홀로 떠나며 수동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만, 창극에서 옹녀는 주어진 역경에 굴하지 않고 중국에는 사랑의 결실인 생명을 잉태해 돌보는 어머니로서 희망을 구현한다.

고전의 파격적 재해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변강쇠와 옹녀의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와 풍성하고 흥겨운 음악 그리고 능청스런 연기력을 겸비한 소리꾼들의 소리 성찬까지 더해져 공연 내내 흥이 넘친다. 음악의 중심은 판소리지만 각 지방의 민요, 비나리, 굿음악, 가곡, 시조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또한 6년 만에 새로 단장한 초록색 무대는 더욱 화사해졌으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과 소품, 무대디자인은 보는 재미를 더한다.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2014년 초연 당시 창극 사상 최초 18금·26일 최장기간 공연으로 화제를 낳았으며, 그해 창극 최초로 '차범석희곡상' 뮤지컬 극본 부문을 수상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16년에는 유럽 현대공연의 중심이라 평가받는 프랑스 파리의 테아트르 드 라 빌레 창극 최초로 공식 초청되면서 한국을 넘어 프랑스 관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바 있다.

<사진제공:국립극장/국립창극단>



7. 17^{FRI} 7:30^{PM}
18^{SAT} 3: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만 18세 이상 입장가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사회적 억압에 맞선 옹녀의 희망가

신민경 국립극장/국립창극단 책임프로듀서

국립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국립창극단이 국립극장에서 2014년에 초연을 올린 이래, 7년 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공연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작품이다. 2014년에 '차범석희곡상' 뮤지컬 극본 부문을 수상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고, 2016년에 유럽 현대공연의 중심이라 평가받는 프랑스 파리의 테아트르 드 라 빌에 창극 최초로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매해 서울·여수·울산·안동·남원 등 전국 각 도시의 관객들을 만났으며, 2020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부산시민회관 공연으로 100회 공연을 맞는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초상살, 상부살 운명을 지닌 옹녀가 주인공이다. 마을 남자들의 잇따른 죽음의 원인을 옹녀 때문이라고 여긴 마을 사람들은 옹녀를 마을에서 내쫓는다. 전국을 떠돌던 옹녀는 우연히 황해도 청석골에서 변강쇠를 만나 신방을 차려 잘 사는 듯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땀감을 구하러 갔던 변강쇠가 장승을 뿔아오는 바람에, 장승의 신들에게 병을 얻은 변강쇠는 결국 죽게 된다. 옹녀는 남편을 되찾기 위해 장승의 신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모험에 뛰어들다.

옹녀는 강인한 여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도망치는 능력이 탁월하다. 월경촌에서도, 원산에서도, 강경에서도, 지리산에서도 탈주한다. 옹녀 때문에 남자들이 죽어 간간다고 믿는 월경촌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를 상징한다. 극이 시작되자마자 옹녀 때문에 죽은 남자들의 관행으로 시작되는 장면은 강렬하다. 한 여성이 가진 운명(상부살) 때문에 여러 남성들이 죽는다는 설정 자체가 픽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을로 상징되는 제도가 지키고자 했던 남성중심의 질서가 무너지는 장례의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강압에 밀려 옹녀는 월경촌을 떠난다. 슬퍼하는 것 같던 옹녀는 한 순간 돌변해 삶의 의지를 다지는 노래를 부른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기필코 내 인생 역전하여 보란 듯이 사리라. 따뜻한 남녘으로 어서 내려가자.” 옹녀의 희망가를 듣는 관객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극을 보는 내내 옹녀의 탈주가 유쾌한 까닭은 늘 사람들/장승들로부터 쫓겨나는 듯하나, 타인이 아닌 스스로 자유를 선택한 자발적인 이주이기 때문이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판소리 ‘변강쇠타령’ 서사의 무게중심을 남자에서 여자로 옮겼기 때문에 극의 소설점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원전에서는 유랑민 부부가 공동체에 정착하려 하나, 남자는 죽음을 맞고 여자도 타고난 미색이 공동체의 선을 해친다 하여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 개인의 욕망에 대한 경계라는 가부장제하 농경 공동체의 도덕적 관념을 강조하기 위해 줄거리가 기괴해지고, 사설도 음란해졌다. 그런데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서사의 중심을 여성으로 옮겨 서사의 전환에 성공했다. 원전이 부분 전승된 유실 판소리가 가진 개방성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원전이 가진 서사의 흐름을 적절히 이어가는 동시에 방향을 확장했고, 음란한 욕망을 건강한 사랑으로 전환할 수 있었

다. 극 속 옹녀가 고립무원의 환경에서 위기를 겪고, 여행을 하면서 성숙하고, 본질적 가치를 깨달아 독립적인 인간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서사 구조는 그리스 희곡의 전형적인 영웅 서사와도 유사해 보인다.

동시대 관객들에게 높은 공감을 산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의 인기는 우연의 소산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주와 이민 등 인류 이동성이 어느 시대보다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고, 다름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존중, 국민과 국가에 대한 재정의 등 현대 사상의 변화를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인공 ‘옹녀’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옹녀는 자기가 가진 욕망의 실현에 충실하고, 운명에 적극적인 주체적 행위자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의 삶을 살기 위해 나선다.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대한민국 국민의 노래, 판소리를 빌려 민중의 삶을 돌아보려 했던 면에서 강한 대중성을 가진다. 미학적인 면에서는 전통의 순수성과 완결성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 없는 판소리 다섯 바탕이 아닌, 유실된 불완전한 판소리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상실에서 얻은 창작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유실 판소리는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판소리가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소실한 것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구전문학으로서 판소리의 힘이 지배 계급이 기록한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한국의 전통을 동시대로 끌어올려 시대적으로 환기시킨 셈이다. 유실 판소리의 창극화가 대안적인 전통과 역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가능한 지점이다.

외설로 치부되던 이야기를 오늘날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로 만든 ‘변강쇠 점 찍고 옹녀’의 부산 공연에는 옹녀 역 이소연과 변강쇠 역 최호성 등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배우들과 더불어, 국립창극단 대표 중견배우 김금미가 ‘대방여장승’ 역을 맡아 새로움을 더한다. 역경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당차게 살아가는 옹녀의 생명력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민족의 음악극, 창극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부산 시민들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객석 띄어 앉기’로 진행된다.

<사진제공_국립극장/국립창극단>

박쥐를 생각하다

정봉석 동아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1960년대를 살았던 세대라면 누구나 만화영화 <황금박쥐>를 기억할 것입니다. 볼거리라곤 TV 밖에 없던 시절, 그것도 동네에 한, 두 대 있던 브라운관을 시청하기 위해 마루 끝까지 몰려들어 머리를 기웃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메리 일행이 황금박쥐를 외쳐 부르며, 망토를 휘두르며 어김없이 나타나 악당들을 물리치는 장면은 감동이었습니다. 방영이 끝나면 아이들은 살짝 밖으로 뛰어나가 황금박쥐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에서 나타났나 황금박쥐 / 빛나는 해골은 정의의 용사다... / 우주의 괴물을 전멸시켜라...” 해골머리를 한 황금박쥐가 휘두르는 지팡이는 그렇게 나의 기억 속에 눈이 부시게 남아있었습니다. 정의의 용사라는 말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황금박쥐>가 TV에 최초로 방영된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실도, 그것이 일본 원작이라는 사실도 그땐 몰랐습니다.

당시에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또 하나의 볼거리는 프로레슬링입니다. 그때를 살았던 세대라면 누구나 김일 선수의 혈투를 기억할 것입니다. 상대선수들이 몰래 반입한 둔기에 뒤통수를 맞고, 백색 가루를 눈에 뿌리는 반칙 공격에 헤매다가도, 어느새 악당들을 번쩍 들어 올려 사정없이 메치고, 외다리 자세로 반동을 줘서 완전히 뺨게 만드는 박치기 한 방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뽀뽀 민머리에 피를 흘리면서도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매고 망토를 걸치는 김일 선수의 모습은 빛나는 정의의 용사, 살아있는 황금박쥐였습니다.

2005년 일본 최고의 영화로 선정된 <박치기>(이즈츠 카즈유키 감독)는 1960년대 교토가 배경입니다. 히가시고 남학생이 조선여학생 '경자'를 모욕한 일로 인해 조선고 학생들



이 들고 일어나 패싸움이 벌어지고, '경자'의 오빠이자 박치기 대장인 '이한성'이 주도하여 히가시고의 수학여행 버스를 뒤엎어버립니다. 이 사건은 재일한국인(자이니치)에게 차별을 일삼던 일본인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실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 학교는 갈등을 풀기 위해 친선축구경기를 가지나 또 다시 패싸움으로 와해되고, 그 와중에 조선고 학생 '재덕'이 히가시고 쪽 패거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쫓기던 중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재덕의 죽음에 의분을 느낀 자이니치들은 히가시고 진영으로 다시 쳐들어가는데, 이 최종 결투에는 부산에서 밀항해왔던 '킨타로(金太郎)'도 가세하게 됩니다.

영화 <박치기>가 한국에 개봉되었던 2006년은 원폭박치기란 별명으로 불렸던 김일 선수가 타계한 해입니다. 1929년 전남 고흥군 거금도에서 태어난 김일은 1956년에 일본으로 밀항하여 형무소에 복역한 뒤, 1957년에 역도산의 제자로 프로레슬링에 입문하면서 오오키 키타로(大木金太郎)라는 이름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역도산은 1963년에 동경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본청년의 칼에 찔려 사망합니다. 함경남도 출신인 역도산의 삶과 죽음에도 자이니치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김일은 1965년에 귀국하여 한국 프로레슬링협회를 중흥시키는 동시에 수차례 세계챔피언 타이틀전에 승리하면서 국민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김일 선수의 국민체육훈장 수훈 및 스포츠국민영웅이라는 공로를 인정하여 지난 5월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유해를 안장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현존하는 국군 최고원로인 백선엽 장군도 유고 시에 대전현충원으로 안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920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올해로 만100세를 맞는 백선엽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전선을 지켜낸 전쟁영웅으로 현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서울현충원이 아니면 차라리 다부동 전적지에 묻히겠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서울현충원에 자리가 부족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은 친일 행적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탓으로 보입니다. 장군에게는 일본만주군관학교 출신이자 간도특설대 소속으로 광복군을 토벌하였던 꼬리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15세기 루마니아의 백작인 드라쿨라는 잔혹한 처형방법으로 유명했던 탓에 소설과 영화에서 흡혈귀의 이미지로 자주 묘사되



었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르고 핏발이 선 채 피가 흘러내리는 송곳니를 드러낸 드라쿨라의 이미지는 절로 박쥐를 연상시켰습니다. 흡혈귀가 되어버린 신부의 이야기에 박찬욱 감독이 <박쥐> (2009 칸영화제 심사위원상)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박쥐는 기회주의의 상징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옛날 우화에, 들짐승들과 날짐승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날짐승이 유리할 땐 날개를 펴서 날아다니고, 들짐승이 유리할 때엔 날개를 접어서 양 진영을 오간 태도에서 유래한 표상입니다.

박쥐는 해충을 잡아먹는 길조라고도 합니다만, 올해 유독 박쥐는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박쥐는 인터페론 베타라는 바이러스 항체를 보유하고 있기에 몸에 약 200종이 넘는 바이러스를 지닌 상태로도 무리지어 살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 바이러스를 쉽게 확산할 수 있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박쥐들이 자연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자 가축이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확률도 높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결국 박쥐를 불러들인 것은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見利思義 見危受命”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기를 보면 목숨을 바쳐라. <논어>의 글귀인데, 안중근 의사의 유묵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맹자>에서는 “수오지심 의지단야 羞惡之心 義之端也”라 하여, ‘羲’의 시작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므로 ‘견리사의’는 이익을 취할 때 양심의 가책은 없는지를 먼저 따져서 혹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연을 개발해서 이익을 구할 때에는 그 속에 갇혀 사는 생명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처사인지를 엄중히 물어볼 일입니다.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12

매실



동길산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 dgs1116@hanmail.net

어느 꽃자리에서 너는 여물고 있느냐

매화꽃 피던 자리
매실이 여문다
해 준 것 없이
보기만 한 꽃
보기만 한 자리
매실이 여문다
내가 본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던 꽃
해 준 것 없이
보기만 한 꽃
어느 꽃자리에서
너는 여물고 있느냐

동길산 詩 ‘매실’

66

언젠가는 누군가는 따야 할 매실
이왕이면 한알 한알 헤아려 따며
미안해하며 행복해하는 당신이길

99

매실이 제철이다. 하루하루 굵어지고 아물어진다. 하루하루가 뭔가. 시간시간 굵어지고 아물어진다. 가만 놔두면 제풀에 부풀어 터질 것 같다. 저걸 따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따려니 아깝고 놔두려니 때를 놓칠 것 같다.

매실나무는 한 그루. 별채 가까운 마당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다. 달랑 한 그루라서 외롭기도 하련만 가장 먼저 꽃 피우고 가장 먼저 열매 맺는다. 동생 하나 없이 홀로 집안 일으켜 세우려는 장남 같고 장녀 같다.

하나둘셋. 어느 시에 썼듯 매화가 피면 꽃망울을 헤아리곤 한다. 부풀어 터질 것 같은 산골의 심심한 시간을 그렇게라도 달랜다. 그러나 한 차례도 성공한 적이 없다. 열, 스물까지는 무난하다가도 그 이상 넘어가면 헛갈리고 만다.

그러면 잔가지들 헤아린다. 가지에 맺힌 꽃망울 수는 이 가지 저 가지 엇비슷하니 가지 수만 알면 전체 꽃망울을 열추 맞추지 싫어서다. 이 또한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한 나무에 꽃망울이 넘쳐나듯 한 나무에 잔가지도 넘쳐난다.

딸까 말까. 따기도 난감하고 안 따기도 난감하다. 꽃망울 때부터 정을 줬는데 어찌 따라. 따야 하는 이유도 같다. 꽃망울 때부터 정을 줬는데 어찌 안 따라. 작은 정은 따지 말라 그리고 큰 정은 왜 안 따느냐 그리고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매실철이다.

매실을 헤아린다. 한알 한알 헤아리다 중간에서 놓친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따야 할 매실. 이왕이면 한알 한알 헤아리며 광주리에 담는 사람이면 좋겠다. 한알 한알 미안해하며 행복해하는 당신이면 좋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Post Corona

공공 공연장의 미래를 전망하다

미증유(未曾有)의 코로나 사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변화와 위기를 몰고 왔지만, 문화예술 분야, 특히 현장성과 대면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타격이 심각하다. 지난 6월호에서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전반과 예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전망해봤다면 이번호에서는 공공 공연장에서 직접 실무를 맡고 있는 현장전문가들과 함께 앞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위기 상황 속에서 주요 공공 공연장들의 대응 현황과 방식을 공유하면서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지속가능한 공연예술과 공연장 운영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2020. 6. 12^금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회의실

참석자 명단

강선옥(사회,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
박지연(아트센터 인천 공연기획팀장)
서승우(재단법인 영화의전당 공연예술팀장)
오정화(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
장지영(국민일보 문화부장 겸 공연칼럼니스트)



강선옥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변화와 위기가 찾아왔고 특히 현장성, 대면접촉 등을 기본으로 하는 공연예술 분야에 타격이 심각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공연장들이 폐쇄되고 재개 시점 또한 불투명한 지금, 국내 주요 공연장들 역시 코로나 확산, 확진자수에 따라서 열고 닫는 조치를 반복하면서 앞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주요 공공 공연장들의 현황, 그리고 대응방식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측 가능한 공연장 환경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개월 간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임시휴관에 들어가면서 공연을 취소, 혹은 잠정연기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연장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왔는데, 코로나 관련 경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 임시휴관 기간 동안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먼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장지영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대부분의 공공 공연장이 문을 닫았는데, 사실 모두 휴관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소속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은 코로나 사태가 가장 정점을 찍을 때조차 운영중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던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두 곳에선 예술위 주최 공연예술창작산실이 열렸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인지 공연을 취소하지는 않고 일정을 축소하거나 무관중 공연 중계 형태로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두 공연장의 경우 공공 공연장이지만 저렴한 대관료 때문에 대관공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민간 단체들은 좌석 거리두기 조건으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두 공연장 외에도 서울의 민간 공연장 상당수가 공연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의전당 등 공공 공연장에서도 직접 주최하는 기획공연은 모두 취소됐지만 대관공연의 일부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의전당 대관공연 가운데 해외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콘서트 등은 아티스트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말 서울시에서 대학로소극장협회에 공연장 내 거리두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강선옥(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

연극계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했지만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에서도 지그재그 좌석제를 시행하는 등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출연배우 중에 확진자 2명이 나오면서 공연계에 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두 배우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감염된 채 들어왔고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아 2주간 격리 후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5월 6일부터는 생활방역체계로 들어가면서 공공 공연장도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이후 2주간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역조치 강화가 다시 무기한 연장되면서 공공 공연장 역시 계속 휴관인 것과 달리 세종문화회관은 예정대로 대형뮤지컬 ‘모차르트’를 무대에 올리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오정화 오늘 마침 방역강화로 바뀌면서 부산 내려오는 길에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주 바로 ‘모차르트’ 개막날이라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연장에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 공연장이 감염위험이 높지 않습니다. ‘오페라의 유령’도 배우가 감염되었던 것이고, 또, 공연장이 고위험 시설에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공연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고위험 시설로 생각하여 보수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4개월을 돌이켜보면 1월 말, 코로나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공연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1월 중순부터 ‘여명의 눈동자’,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와 아버지와 흥매와’ 등 장기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월 마지막 주에 바로 조기 종영했습니다. 해당공연의 대관료는 모두 환불 조치했으며, 이후 2, 3월 열릴 예정이던 공연은 거의 다 취소했습니다.

공연이 취소되면서 관객, 시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그럼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면서 결국 온라인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관이 취소된 공연팀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도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실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환불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작비에 투입된 돈을 배상할 수도 없으니 단순히 스트리밍 서비스나 온라인 영상 서비스가 아닌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시 지원으로 기획된 것이 바로 ‘힘내라 콘서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공연이 취소된 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팀에게는 공연장 대관과 제작비,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공연을 하고 5월 말까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되었고 온라인 공연으로 중계되는 만큼 다양한 관객층을 위해 뮤지컬, 어린이극, 인디밴드,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선보였습니다.

장지영 공연은 예술인 동시에 예술가들의 생계가 걸린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좌석 거리두기가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른데요, 영국은 2미터, 미국은 1.8m, 독일은 1.5미터, 오스트리아는 1m, 그리고 한국은 원칙적으로 2미터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 1미터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WHO 기준은 최소 1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5월 하순부터 좌석 거리두기를 전제로 대면 공연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좌석 거리두기를 계속 하는 것은 공연계에는 심각한 부담입니다. 최근 미국 보스턴심포니홀의 조사에 따르면 2,600여석의 보스턴심포니홀이 1.5~2m 거리두기를 지킬 경우 전체 객석의 20%인 500여석 밖에 입장권을 팔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수입을 비슷하게 맞추려면 입장권 가격을 4~5배 올

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공연예술이 극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예술이 되든가 아니면 공연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공연장들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연장을 열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피터 겔브 총감독도 좌석 거리두기와 오페라는 공존할 수 없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는데, 현실적으로 공연계에서 좌석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공연계의 요구로 거리두기 기준이 1m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정화 좌석도 좌석이지만 입장 시 관객들간의 접촉이라든지 문진표 작성 등 방역지침에 따라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생활방역에 들어갔던 5월 말, 기획공연이 처음 열렸을 때 시범적으로 QR코드를 도입하여 문진표를 작성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티켓에다가 문진표를 작성하고 입장 시 문진표가 있는 티켓의 큰 부분을 저희쪽에서 받았는데 티켓을 소장하고자 하는 관객들의 불만이 생기고 또 서로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휴대폰 번호 허위기재를 막을 수 있어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QR코드 문진표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주 ‘모차르트’ 공연 때부터는 QR코드 전자문진표와 오프라인 문진표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티켓 창구 앞 투명 아크릴판 설치, 발자국 표시를 통한 관객들 간 간격 유지체계, 그 외에도 전자물품보관소를 설치하여 입장권 내 QR코드를 사용하면 4시간 무료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비대면 공연장 서비스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박지연 클래식음악 전용홀인 아트센터 인천의 경우 올해 1월 18일 개최한 신년음악회를 제외한 이후 공연들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공연의 비중이 크다보니 많은 공연들이 아예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하더라도 5월 중이면 끝이 날 거라 예상했는데 지금으로서는 해외 연주자들이 들어온다 해도 2주 자가격리가 의무상황이라 사실상 올해는 공연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박지연(아트센터 인천 공연기획팀장)

있습니다.

그 외 국내공연은 무관중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이버TV와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연을 진행하다보니 물론 공연장에서 느껴지는 현장감은 없지만 관객간의 소통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무자로서 관객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또 아트센터 인천이 아직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연장이라 온라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트센터 인천에서는 지난 4월 25일 처음으로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공연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운인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은 음향이 훌륭하여 클래식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공연장인데 온라인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전달할 수 없어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서승우 영화의전당은 공연장과 극장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초기에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의 경험을 살려 공연장과 영화관 두 곳 모두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만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몇 건 안되지만 기획과 대관 공연 모두 진행하였고 2월 15일에 기획공연으로 진행되었던 '적재콘서트'는 관객 모두가 마스크를 쓴 만석 상태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25일 방역지침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당 전체가 4월 19일까지 약 2개월

간 폐쇄에 들어갔다가 4월 20일 다시 운영에 들어갔지만 예정되었던 대관공연과 기획공연은 관객 확보가 여의치 않아 대부분 취소 또는 연기되었습니다. 6월 초까지 취소된 대관 공연이 54건입니다. 기획공연이었던 '피아니스트 손열음 독주회'의 경우는 매진이 되었지만 지그재그 좌석피어 앉기를 할 수가 없어서 10월로 연기한 상태이고 6월 9일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마티네콘서트'로 기획공연을 다시 시작했지만 지그재그 좌석피어 앉기로 공연하였습니다.

영화의전당 공연장은 연중 1월, 2월이 비수기다 보니 이 기간 지역의 예술단체와 공동제작으로 장기공연을 준비하는데요, 올해는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라는 작품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2월 말, 3월 초에 공연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오는 7월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지원 차원에서 공연이 연기되고 재공연이 불확실했지만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출연료의 80%를 선지급했습니다. 공공 공연장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요, 만약 7월 공연마저 취소된다면 온라인 공연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공연장과 극장은 안전하다는 캠페인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발열체크 후 손소독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로 입장하여 말없이 앞만 보고 공연과 영화를 즐기잖아요. 아침 출근길의 승객들로 가득 찬 버스나 지하철보다 안전하고 다른 어떤 집합 시설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장과 극장 시설은 안전하다는 캠페인을 공공극장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화 지금 영화관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다시, 봄'이라는 타이틀로, 배우 이병헌 씨가 나레이션에 참여했는데요, 영화관들이 안전한 영화관람을 위해 열심히 닦고 소독하는 등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관객들도 다시 영화관을 찾자는 내용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대형뮤지컬 개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객석 거리두기는 아니지만 공연의 재개를 알리는 캠페인성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지영 한국 공연장의 방역이 칭찬을 받으며 해외에도 소개됐지만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곳곳하게 공연을 올린 곳은 민간 공연장입니다. 사실 공공 공연장은 문만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연장의 K방역은 민간 공연장이 필사적으로 공연을 한 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공연장 내 거리두기는 좌석 거리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무대 위 거리두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서 유럽에서 합창단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구미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는 무대 위 거리두기도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공연장이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공연을 위해 객석뿐 아니라 무대 위 거리두기에 대한 규정도 만들었는데, 가장 선도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오케스트라협회가 4월 말쯤 의료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만들었는데,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단원들끼리 적어도 1.5m 띄어 앉을 것, 관악 연주자와 성악가는 비말이 많이 튀니 적어도 3m 이상 떨어질 것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단원 70~80명인 오케스트라는 그대로 무대에 서지 못하고 50명 정도만 서야 합니다. 이런 무대 위 거리두기에 따라 베를린필이 5월 1일 최초로 단원 15명의 실내악 연주로 무관중 중계했는데, 연주자들이 띄엄띄엄 있으니 결집력이 없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22일 용재 오닐과 디토 체임버오케스트라가 연주자 간 거리를 1.5m 두고 연주했는데 역시 전반적으로 음이 결집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빈필이 6월 5일 대면공연을 재개했는데요. 빈필의 경우 객석 거리두기는 지키되 무대 거리두기는 연주자의 자기 책임 아래 상황에 따라 맞게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바렌보임이 협연자 겸 지휘자로 나선 공연을 보니 단원이 한 60여명 되더군요. 무대 위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또한 영국 음악계에서는 현악 연주자들은 1m 이하로 거리를 뒀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시향이 5월 29일 대면공연을 재개하려고 했다가 오스모 벤스케 예술감독의 강력한 요구로 온라인 공연으로 바꾸고 무대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서울시향이 연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하지

만 연주자, 관객의 안전과 더불어 공연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아쉬움이 남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공연장 내 거리두기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공공 공연장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에선 그저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과 민간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는데, 오케스트라의 경우 무대 거리두기를 실시한다면 빈필처럼 연주자 각각의 책임하에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선옥 부산문화회관의 경우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던 2월 중순 경부터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등의 기획공연을 잠정 연기시켰고, 임시휴관 조치가 내려진 2월 24일부터 부산시립예술단 7개 단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통해 개별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대관공연들도 모두 취소되고 시민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도 극도로 제한되는 가운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공연장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나, 또 예술로 어떤 위로를 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빠른 준비를 거쳐, 저희 부산문화회관의 영문 이니셜을 딴 <배시시 콘서트(BSCC Concert) On Live>라는 타이틀로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10회 차의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과 '시즌1'을 구성했고,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재즈 연주단체, 무용예술인 등의 12개 팀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시즌2'를 구성했습니다. 4월 23일과 24일에 예정되었던 컨템퍼러리 국악그룹 '블랙스트링 콘서트'와 '마티네 콘서트: 드니 성호, 나의 기타 이야기' 등의 기획공연도 <배시시 스페셜>이라는 타이틀로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구요. 저희가 3월 12일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공연장보다 빠른 시기여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회가 거듭되고 이후 해외 공연장이나 유명 공연단체들의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면서 영상의 퀄리티라든가, 음향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기획공연까지 포함해 총 12회 차의 생중계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영상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도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공연예술을 얘기할 때 ‘비대면’, ‘영상화’, ‘온라인’ 등의 단어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영상의 퀄리티나 플랫폼의 문제, 수익구조라든지 저작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또 온라인 스트리밍을 제공하면서 성과라든가 영향, 그리고 한계 등을 이야기해보면 이후에 이런 공연 영상화를 어떻게 공연예술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가 나올 거 같습니다.

서승우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공연예술은 대면, 라이브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 때마다 과거에 기록되었던 영상 이든, 스트리밍을 하든, 녹화 중계를 하든, 아님 영상용으로 새롭게 제작을 하든 공연 영상물이 각광을 받을 텐데요, 그것이 공연의 대체제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국의 모든 문화회관이 영상장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해 영상장비를 보급하려는 의도에서 공연 영상화 사업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새로 건립되고 있는 부산 오페라하우스나 국립아트센터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영상 장비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연 영상화를 오로지 기록물로 보고 잘 만든 기록물이 홍보의 수단이 될 수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모델이 되려면 적어도 시아준수나 BTS,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수의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활동하고 있는 영상물 속에 지역의 연극, 지역의 무용, 지역의 음악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현장에서조차 경쟁력이 없어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영상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공연 영상물로 인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시대, 영상이 필요한 이유는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써의 수

단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장지영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장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연 영상물을 유통하는 방식에는 개인 IT기반의 온라인 스트리밍&VOD(주문형 비디오) 방식과 영화관에 가서 보는 시네마 이벤트 방식이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에서 제작하는 ‘MET 라이브 인 HD(MET 라이브)’나 영국 국립극장(NT)의 ‘NT 라이브’가 시네마 이벤트 방식을 택했습니다. 베를린 필의 ‘디지털 콘서트 홀’은 개인 IT기반의 스트리밍&VOD 방식이구요.

최근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조은아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요, 데이터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온라인 공연에 집중하는 시간이 20분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최근 온라인 공연을 많이 봤지만 항상 어느 순간에는 집중이 안되더라구요. 참고로 시네마 이벤트에 대해 관객들의 평가는 좋습니다. 몰입도도 높고 다채로운 카메라 워크를 통해 클로즈업 퍼포머들의 표정을 보거나 전체 미장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영화관도 가지 못하니까 다들 개인 IT기반의 스트리밍&VOD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3월 중순 베를린 필이 디지털 콘서트를 무료로 열기 시작했고, MET가 ‘나이틀리 메트 오페라 스트림스(Nightly MET Opera Streams)’라는 이름으로 공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공연이 많이 이뤄졌는데,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오게 만들지,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서승우(재단법인 영화의전당 공연예술팀장)



MET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를 볼 수 있도록 MET 라이브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젊은 층이 저렴한 값으로 오페라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까지 연간 2천 만장의 MET 라이브 티켓이 팔렸습니다. 수익 면에서 MET에 꽤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ET 라이브의 목표는 영화관에서 오페라를 본 관객들이 실제 공연장에 와서 오페라를 보라는 것인데, 영화관에서 봤던 오페라를 굳이 비싼 티켓을 사서 실제 라이브 공연으로 보려는 사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NT 라이브는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요, 연극은 오페라에 비해 티켓 값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NT Live의 경우 스타배우도 많이 출연하는 등 대중과의 친화도가 높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MET 라이브와 NT 라이브의 차이는 장르와 티켓 가격에 따른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 이곳저곳에서 온라인 공연만 하니까, 공연 영상물이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유통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유통 안에 시네마 이벤트 방식과 개인 IT기반의 스트리밍&VOD 방식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다시 시네마 이벤트 방식으로도 돌아갈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공연 영상화에 대해 공공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과제인데요, 공공 공연장이 스튜디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스튜디오라는 것이 공연장을 방송사처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화에 대한 감각이 있는 프로듀서나 비주얼 디렉터가 있으면 나머지는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하면 됩니다. 안그래도 지역의 공공 공연장들이 경직되어 있는데 더욱 조직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카메라 등도 좋아졌는데, 뭐하러 극장에 넣어서 노후화 시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정화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힘내라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이버를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공연을 무료로 진행하다보니 기존 관객들 외에 한 번도 공연을 보지 않았던 분들도 공연을 보게 되더라고요. 공연시장이 있어서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되면 기존 관객이 아닌 더 다

양한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 플랫폼과는 별도로 3편 정도를 유플러스와 협업을 했어요. 특히 유플러스는 공연을 VR서비스로 제작했는데 평면적으로 보는 공연과 VR로 보는 공연은 정말 다르더군요. 그런 측면에서 VR과 같은 기술력을 활용한다고 하면 좀 더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고, 비주얼 디렉터 등 전문가를 통해서 하면 오히려 더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통형 콘텐츠라는 게 보는 사람들끼리 댓글을 남기고 거기에 의견내고 하면서 나름 소통형 공연으로서의 기능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공연물에 대한 온라인 영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업계에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VR서비스도 뒤늦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이후 여기저기서 공연 영상 서비스를 협조 요청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다시 출연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해서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없을 뿐더러 저작권 서비스를 쉽게 얻는 것으로 생각하여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하고 서비스를 종료 했어요. 뒤에서도 이야기가 더 나오겠지만 당면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저작권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온라인 공연이 활성화되면 완성도도 좋아야 하고 대중성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숙제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지영 온라인 공연이 한국에서도 붐이 일면서 새롭게 실시간 공연 중계도 하지만 과거에 기록용으로 찍어둔 것

오정화(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



을 올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확실히 이런 기록용 공연 중계는 카메라워크도 단조롭고 화질도 좋지 않아서 재미가 없죠. 그나마 국내 온라인 공연 가운데 가장 볼만한 것은 예술의전당 ‘씩 온 스크린(SAC ON Screen)’입니다. 몇 년 전 당시 방송국 출신이었던 사장이 MET 라이브와 NT 라이브를 모델로 해서 시작했는데, 당시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문화소외층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설계되면서 지역 문예회관 등에서 무료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예술의전당은 자체 기획공연이 매우 적어서 대부분 국립발레단 등 대관 단체들의 작품을 영상화 했죠. 이 때 단체들에게 1회 개런티를 주고 영상을 찍었는데, 공익 목적이라는 이름 아래 저작권료를 제대로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콘텐츠를 무료로 소비할 수 있게 하면 나중에 유료화로 돌아서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도 브로드웨이 온 디멘드라던가 뮤지컬HD와 같은 뮤지컬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가 실제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데, 한국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유료화를 통해 공연 수익 다변화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 공연장의 콘텐츠는 더욱더 유료화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연의 영상화와 온라인 유통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흐름을 버티며 거부하는 것이 자칫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오정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6월 20일 온라인 유료공연을 처음 시도합니다. 유료공연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끔, 제작 지원에 쓰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거거든요. 사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일단은 유료에 대한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지 알아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 유료화를 위한 플랫폼 자체도 열악합니다. 네이버 플랫폼에 있는 ‘후원하기’라는 단어를 이 공연에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응원하기’라고 고치려 했는데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작은 것조차도 안될 만큼 아직 국내시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시도를 통해 점점 어떻게 계속 수용해 갈지를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지영 해외의 예를 들면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자신의 작품들을 온라인 스트리밍할 때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조의 호수’의 매튜 본은 아예 공연 4개를 유료로 스트리밍 했어요. 그동안 많은 기관 및 단체들이 무료로 온라인 스트리밍했는데, 매튜 본은 개인 컴퍼니를 운영하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유료로 택했더라고요. 온라인 공연 유료화 문제와 관련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은 이를 동안 온라인 스트리밍 했을 때 천만뷰를 기록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지역 공공 공연장의 영상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리고 이제는 기존의 관점을 버리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다 취소됐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이 이동하는 국제 교류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연장들은 스타가 없는 공연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국내 아티스트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승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지역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동을 제한하고 있고 더구나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지금, 해외 대신에 우리 동네를 돌아보고 우리 동네의 환경과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술가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잠시 멈춘 지금 지역의 공연장을 통해 지역의 아티스트를 재발견할 수 있는 참신한 기획이 지역의 공연장 연대를 통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굴된 지역의 예술가를 국내의 다른 지역과 해외에 알리는 방법으로 영상 스트리밍, 중계가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공연 영상이 어찌면 코로나와 같이 이동이 제한된 시기에 국제 교류행사로서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선욱 공연 영상이 실제 공연을 대체할 수 없지만, 공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로 인해 관객층을 확대시킬 수 있다든지 하는 순기능은 분명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대부분 동의하는 지



장지영(국민일보 문화부장 겸 공연칼럼니스트)

점들이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언젠가 다가올 미래인데 너무나 급격하게 빨리 다가왔다, 그래서 모두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술계가 미디어나 디지털 기반에 취약하다 보니, 아직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이 ‘온라인’이나 ‘공연영상’이라는 매체들이 대면 공연에 대한 대체재로 떠오르면서, 예전에 제작해 놓았던 영상들을 단순히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하고 배급하는데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로 사유하고 성찰하면서, 이를 새로운 양식과 방식으로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연 영상화’라는 이슈가 단순히 대면 공연의 영상화나 온라인 송출, 또는 아카이빙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연예술이 미디어나 디지털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전유하고 새로운 창작, 혹은 예술적 도전과 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를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지영 유통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창작의 변화로 이어 집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NT에는 조직 안에 VR, AR 등 실감 콘텐츠 제작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기존의 스토리를 그대로 실감 콘텐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감 콘텐츠에 어울리는 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국이 공연 영상화와 관련해 늦은 거 같지만 해외 역시 그다지 오래되지 않아서 저작권 등 여러 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들 사례를 참조해 저작권 문제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연 공연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의 필요성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동안 공연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던 분들, 혹은 저희 공연장을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분들도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일례로 지난 4월에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공연의 제목이 ‘베토벤 비긴즈’였는데 이것을 영화 ‘베트맨 비긴즈’로 알고 들어왔다가 공연을 보신 분도 계셨어요. 물론 그분들이 공연장을 다시 오픈했을 때 얼마만큼 직접적인 관객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객 개발의 확장성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동안 녹음이나 녹화를 단순히 자체 기록보관용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고화질의 영상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난 3월에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홍콩과 호주를 거쳐 저희 공연장에서 연주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호주에서만 공연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팀과 협의하여 호주에서의 연주실황 녹화 자료를 받아서 관객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해외단체 초청공연 시 공연실황 녹화를 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계약 단계에서 협의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적이 많은데 앞으로는 개런티가 좀 더 발생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선옥 이렇게 공연 영상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공연예술이 발현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으로서의 공연장이라는 지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까지 당연시 되어오던 것들에 대한 성찰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관통하면서,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공연장의 본질, 혹은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장지영 실내 공연장 그리고 프리시니움 무대에 대한 짐작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실내는 위험한 곳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의 시대에는 전통적인 실내 공연 형식 대신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장소 특정형 공연, 드라이빙 시어터 공연, 연극적 경험을 주는 설치예술 활용한 공연, 관객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퍼포머가 되는 관객참여형 공연 등을 시도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서승우 하지만 그런 형식의 공연들은 지금까지 얼마든지 해왔다고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장을 오지 못하는 이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이 꼭 공연장을 벗어나 야외로 나가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장지영 공연장으로 다시 돌아가는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공연장을 이용한 작품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작품을해보자는 거죠. 공연장을 열지 못하거나 관객들이 오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된다면 아무 것도 안할 건가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자는 거죠.

오정화 우선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공연만 딱 관람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촉을 줄이기 위해 무인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발권하고 입장도 직접 할 수 있는, 사실 이미 검토하고 있는데요. 비용은 적지 않게 들지만 하반기 빠르면 작은 극장부터라도 시도를 해서 최대한 대면접촉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사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이미 사람들도 온라인 공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지난번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온라인 공연기획’이라는 강좌가 만들어졌는데요, 강좌가 금방 매진됐습니다. 이미 온라인 공연기획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저희 역시 온라인 공연기획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이것을 공연장을 통해서 보여주자는 거죠. 공연장을 플랫폼으로 해서 스튜디오 형태로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연장은 안전하다’라는 캠페인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여러모로 앞

으로 어떻게 공연을 준비할 것인가를 열어두고 검토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강선옥 어차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염 가능성이 0%인 곳이 없다면, 방역 시스템이나 관련 매뉴얼을 정교화 하면서 감염 리스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공연장 안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요소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공연장에서 기획하고 프로그래밍 할 때 지금까지는 예술적 수월성, 또는 완성도 높은 공연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내외 유명 단체들을 초청하는 것이 프로그램 구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초청이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럼 결국 지역에서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고 관객들과 만나는 기회들을 공연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연장들은 ‘기획’이라는 타이틀로 기존의 공연들을 단순히 선별하고 프리젠틱만 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에 있는 예술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공연을 제작하고 또 관객들과 매개시키는 지역 예술 생산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제작극장으로서의 역할이 커져야한다는 생각합니다.

서승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에서도 자체 제작을 하고 있지만 관객들이 작품을 선택할 때 지역 작품 보다는 수도권의 유명 작품들을 우선 선택합니다. 그런 만큼 이 시기에 지역의 작품, 배우들을 발굴하고 특화시키는게 지역 공연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의전당에서도 매년 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역 협력형 사업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지영 저는 국제교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이 오가는 국제교류가 어려워졌는데요, 7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뮤지컬 ‘제이미’의 경우 연출가 등 창작진이 영국에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영상을 주고 받으며 협업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아예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공연장 가동이 기약없는 상태인데, 일이 없는 아티스트들의 경우 2주 자가격리를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출가, 무대디자이너 등 괜찮은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연락해서 한국공연을 제안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서승우 먼저 국제교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영화의전당은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으로 지어진 시설이지만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합창제, 부산국제무용제,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 다양한 장르의 퍼포밍 아트페스티벌이 열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작품과 감독, 배우들이 들어 올 수가 없으니 예정되었던 국제 행사들이 하나씩 취소 또는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더구나 유럽, 미주의 상황이 회복이 안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더구나 예정했던 국제행사의 규모가 줄어들다보니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줄이게 되고 그게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술 등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1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옥 지역에서 공연 기획을 하다보면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나 지역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것을 기획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일례로 부산이라는 지역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올릴 수 있는게 ‘해양성’이라 봅니다. 그러면 해외 다른 지역의 바다에 인접한 부산의 자매도시와 ‘해양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아님 같은 주제로 프로덕션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서로 상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런 제한된 조건들을 역이용하면 새로운 예술적인 발견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지영 우리나라는 사실 공연장간 협업이 잘 이루어지

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같은 도시에선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해외에선 같은 도시에서 공동으로 기획을 주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의 테아트르 드라빌(시립극장)과 샤텔레이 극장은 종종 공동기획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피나 바우쉬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고 했을 때 여러 작품을 두 곳에서 나눠 올립니다. 특히 큰 규모의 작품은 샤텔레이 극장에서, 작은 작품은 테아트르 드라빌에서 나눠 올리더군요. 부산의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영화의전당이 공동기획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서승우 좋은 제안입니다. 이제는 문예회관 간 단순한 경쟁체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문화회관의 ‘배시시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문화회관연합회 부울경 지회에서 온라인 공연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 공연은 영상의 퀄리티가 문제이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공연장별로 영상제작 인력을 갖추 수 없으니 그럼 공동으로 그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부산은 영화도시이기도 하고 영화관련 시설이 영화의전당을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공연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은 연대에서 출발해야 하고 경쟁에서 협업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각 지역 극장의 특징을 살려서 전용극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례로 부산문화회관은 시립예술단 중심의 제작극장이거나 시민회관 중심의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영화의전당은 영화를 테마로 한 공연장,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은 연극, 금정문화회관은 뮤지컬, 동래문화회관은 난버벌 등 이렇게 회관별로 다른 특징이 있는 공연장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고 앞으로 지역 공연장들의 협업체계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장지영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국공립 극장 및 국공

립 예술단체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공연계의 경우 공공 지원 없이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 티켓 마케팅에 의존해 왔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레이오프(layoff), 즉 많은 아티스트가 일시해고나 무급휴직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극장이나 단체의 파산이 나오고 예술가들은 실업자가 됐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미국보다 덜하지만 BBC의 4개 오케스트라를 2개로 통합하라는 말이 나오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큼니다. 또 웨스트엔드의 뮤지컬 극장들이 전부 문을 닫으면서 거물 프로듀서인 카메론 매킨토시도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직원들의 정리해고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국공립 공연장과 단체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공연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나 민간의 고통을 많이 모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공립에 걸맞는 역할을 해왔는지, 국민의 세금에 걸맞는 성과를 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강선옥 저희 부산시립예술단 경우 기존의 찾아가는 공연 외에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연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연 영상화 작업을 통해 아카이브 구축은 물론 앞으로 또 어떠한 비상사태로 대면공연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예술단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승우 최근 부산진구에서도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에 아이디어를 얻어 지역의 아파트를 돌며 ‘베란다 음악회’를 열어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작은 예이긴 하지만 이렇게 국공립 예술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최근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코로나19기간 중 지그재그 좌석 띄어앉기 때문에 대관료 할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대관공연 기획사가 전석을 판매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거리두기로 50% 밖에 좌석을 판매할 수 없으니 대관료를 할인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지역예술단체 역시 어려워니 할인을 해줘야 한다는 두 가지 상황이 생겼는데 제 생각에는 상업공연을 하는 기획사가

반 밖에 팔지 못해서 할인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원을 받는 단체에 할인을 해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결국 국민을 하다 답을 내리지 못하고 둘 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할인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다른 공연장에서는 대관료 할인과 관련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정화 저희도 되게 고민이에요. 여태까지 저희가 대관료만 환불한 게 8억 정도인데,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하반기 공연 역시 계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공연을 취소하고 또 한쪽은 계속 공연을 하겠다 하고, 이게 맞물려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을 할 수 있는 곳에 대관을 주며 이전보다 더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금을 받은 안받든, 그리고 그게 금액이 많은 적든 공공기관의 특성상 현재 상황으로는 대관료를 환불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관료 할인 정책은 따로 없습니다.

박지연 저희 또한 대관료 할인은 조례 규정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같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승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요구들이 많을거 같은데,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는 국가나 시에서 해결해야지 공연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강선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도 대관료 할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관련 조례나 규정이 없어 대관료 할인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또 지금까지 각 공연장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면서 대응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공 공연장들이 함께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또 공동의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공연장 운영의 방향을 타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논의했던 자리가 이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_배준익_홍보팀 대리>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 유목민

제21회 부산문화대상 수상 음악평론가 정두환

동길산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음악 영역 확장한 공로
'부산문화대상' 받아
음악가에서 인문학자로,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하나도 해내기 어려운 분야
거침없이 '하이킥'

음악은 뭘까. 소리일까, 경계를 뛰어넘는 그 무엇일까. 본지 편집위원인 정두환 음악평론가가 올해 부산문화대상을 받았다. 부산 문화방송과 부산은행이 한 해 한 번 주는 상이다. 정두환 평론가는 음악을 인문학, 나아가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한 공로로 문화 예술 부분 대상을 받았다. 수상 기념 대담 내내 든 생각이 '음악은 무엇일까'였다.

"음악은 상상력이며 관계죠. 함께하는 거고요." 정두환 평론가 이력은 이채롭다. 음악에 입문한 이후 줄곧 경계를 넘나들었다. 사람이 가진 상상력에 경계가 없듯 상상력에 바탕을 둔 그의 음악 역시 경계가 없다. 음악 안에서 경계를 허물었으며 음악 안과 밖의 경계도 허물어냈다. 나의 경계를 허물고 당신에게 나아가듯.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공유'는 정 평론가가 추구하는 가치다. 음악 안에서도 그렇고 음악 바깥에서도 그렇다. 그가 추구하는 공유는 소유의 대척점에서 비롯한다. 예술은 결코 소유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장하면서 비로소 경계는 허물어질 수 있었다. 음악은 하나가 아니고 하나 이상이며 하나 이상의 그 모두를 아우른 거였다. 그 방점이 공유였다.



“고교 다닐 때 합창반 했어요. 삶의 돌파구처럼 그냥 좋았어요.” 정두환 평론가의 음악 인생은 다채롭다. 고교 합창단원에서 시작해 연주자, 작곡가, 지휘자, 평론가, 강연이며 음악 방송 진행자 등등의 길로 나아갔다. 그냥 좋았다. 엔간한 사람은 하나도 해내기 버거운 전문 분야를 ‘그냥 좋아서’ 거침 없이 ‘하이킥’ 해왔다.

‘놀자! 문화야!’ 정 평론가는 현직 교사다. 대학 강의도 한다. 그가 거쳐 가는 중고교, 그가 강의를 맡은 대학은 하나같이 주목을 받는다. 3년을 지낸 사하구 다송중학교도 그랬다. 한 달 봉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 을숙도문화회관을 통째로 빌렸고 대규모 음악회를 네 차례나 열었다. 제대로 된 문화에서 멀찍이 떨어졌던 학생들을 문화와 놀게 하자는 취지였다. 중학교 주최 대규모 음악회는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정 평론가에게 ‘처음’은 한돌이 아니다. 뜨겁고 아이디어가 넘친다는 방증이다. 을숙도교향악단, 해외환경음악회, 폐건전지와 동전 티켓 정 평론가의 ‘처음’에 등장하는 아이콘이다. 을숙도교향악단은 한국 최초로 노동부와 협력해 예술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했으며 을숙도교향악단을 이끌고 호주 시드니 타운홀에서 제1회 해외환경음악회를 열었으며 생태환경운동의 하나로 폐건전지와 쓰지 않는 동전을 음악회 입장표로 받았다.

“아파서 입원해 있다가도 화요일이면 링거 뽑고 나왔습니다.” 화요음악강좌와 정두환 음악평론가는 동격이다. ‘정두환의 좋은음악 & 좋은만남’이란 이름으로 2000년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이 강좌의 처음과 끝이 정 평론가다. 올해 3월 20주년을 맞았고 코로나 때문에 미룬 20주년 기념 강좌를 지난 6월 9일 열었다. 매주 화요일? 사람인 이상 아프기도 하고 타지에 불일도 있을 테지만 아무리 아파도 화요일이면 열었고 아무리 멀리 갔어도 화요일이면 돌아왔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 20주년을 맞았고 20주년 기념 74회 강좌를 열었다.

음악이 다가 아니었다. 음악 강좌를 표방했지만 음악을 매개로 한 인문학 강좌였고 삶의 본질이랄지 가치를 찾아가는 철학 강좌였다. 부산 음악계를 대표하는 독서광답게 동서를 아

우르고 고금을 아우르는 정두환 강좌는 중독성이 강하다. 얼마나 강한지 한 번 들은 사람은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20년 전 첫 강의를 들은 시민이 아직도 들을 정도다.

“나눔이 아니라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평론가는 좀 까칠한 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직설적이다. 실제로 까칠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직설적이라서가 아니라 속 깊은 마음을 감추려는 은폐 본능 때문이다. 속 깊은 마음은 ‘동행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나눔은 가진 자가 안 가진 자에게 베푸는 의미라면 동행은 동등한 사람이 함께 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음악 강좌를 20년 해왔고 그런 마음으로 음악 안팎을 넘나들었다.

문화 유목민. 정 평론가를 아는 이들은 그를 ‘문화 유목민’이라 부른다. 어느 한 분야에 안주하지 않는 정 평론가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그의 유목민 성향은 나보다 당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배려다. 그러한 배려에서 시작한 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음악 강좌였고 사람을 바탕에 둔 예술인문학이었으며 이웃과 함께하는 실천적 삶이었다.

음악가에서 인문학자로, 그리고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부산 문화대상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정 평론가를 추천한 단체는 특이하게도 부산적십자사다. 음악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정 평론가를 높게 본 까닭이다. 넓은 의미에서 정 평론가 음악 활동이 ‘우리’를 맨 앞에 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 평론가는 맨 앞에서 자원봉사를 실천해 온다. 현재 부산자원봉사포럼 공동대표다. 인터넷 검색창에 ‘자원봉사를 치고 ‘정두환’ 이름 석 자를 치면 기사가 수두룩하게 뜬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훗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유목민이 이동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라는 말도 하고 자신이 해오는 일이 타인에게 위안이 됐으면 한다는 말도 한다. 악보 읽는 것보다 어려운 건 악보 이면을 읽는 것. 우리에게 정두환 이름 석 자를 보여주려고 이면에서 기울였을 그의 노고와 열정은 오죽했을 것인가. 열심히 살아온 정두환 음악평론가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데 어울려
달리 가는 길을
찾다

인문학당 달리

박나무 자유기고가

모름지기 모르는 길은 물어서 찾아가야 한다. 남 자사람들이 특히 길을 잘 묻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나만 하더라도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앱이 나오면서 더욱 묻지 않게 되는 것 같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도 잊지 않은가. 묻지 않고 헤 매다 보면 결국엔 도착하겠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지도 모른다. 묻지 않고 잘 찾아가는 사람의 요 행이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차라 리 헤매던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이 더 큰 도움일 것이다.

인문학당 달리를 찾아가는 길도 그랬다. 초행길이 면 더 자세히 물어야 했다. 엄밀히 말하면 초행길 이 아닌 것이 지난번엔 승용차로 갔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 애를 먹어 이번엔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은 영주동에 내려 500미터 정도 걸으라고 했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 각했다. 그러나 깎아지른 산복계단을 오르는 것 은 이 여름에 권할 일이 아니다. 부산역을 기준으 로 설명하자면 7번 출구로 나와 43번 버스를 타 고 영주동이나 부산터널 위에서 내리지 말고 코 모도호텔, 메리놀병원, 부산디지털고를 둘러가는 여러 정류장을 지나서 꼭 동아아파트 앞에 내려 야 한다.

인문학당 달리는 그렇게 길을 찾아 모인 사람들 의 공간이다. 요즘 인문학이 뜬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결국은 쇠퇴의 길에 선 것이라는 말도 있겠 지만, 달리는 그 인문학의 요체인 철학과 심리학, 사학, 문학을 여럿이 모여 공부하고 길을 찾고 방 법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어떤 저녁에는 다 큰 어 른들이 모여 돌아가며 책을 소리 내어 읽는다. 책 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석학들이 해 설을 하고, 삶을 붙여서 독서가 혼자 가는 길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서 더욱 행복한 길임 을 알게 한다.





신영복의 담론을 그렇게 읽었고, 사마천의 사기도 같은 방식으로 뒀다.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더 받기는 힘들고 2기, 3기 과정을 따로 열 계획이라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쯤 된 학생들이 모여 어린 왕자, 키다리 아저씨, 갈매기의 꿈, 빨강머리 앤을 토론한다. 아이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문학박사들이 자세를 한껏 구부려 눈높이를 맞추며 동행하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애들아, 책을 심자>.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씨앗으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자는 욕심이라. 중고생들을 모아 한국근현대사를 공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을 찾아볼 계획이라는 귀뜸도 얻었다. 교과서처럼 쉬운 결론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란이 되는 장면을 고르는데, 예를 들면 왜 우리나라는 남의 전쟁터가 되었을까? 식민지 덕분에 근대화가 되었을까? 철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금 모으기로 금융위기를 벗어난 것일까? 아이들의 단단한 성장이 기대된다.



인문학당 달리는 독서가 혼자 가는 길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서 더욱 행복한 길임을 알게 한다

1층은 달리미술관. 신진과 중견을 가리지 않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전시를 연다. 최은정, 여근섭, 김진희, 엄경근, 조용문, 노재학, 윤은숙 작가들이 함께 했고 6월은 임현주 작가가 25회 개인전을 열고 있다. 7월에는 그간 전시되었던 작품들 중 귀한 것들을 모아 전시회를 연다고 하니 찾아볼 만한 일이겠다. 산복도로에 문을 연 미술관이라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큰 화제다.

“평생에 미술관 출입은 처음”이라는 간증들이 줄을 잇는다. 이젠 많은 주민들이 이웃집처럼 무시로 드나든다. 조만간에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물품을 한 점씩 받아 사연도 함께 소개하는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다니 흥미가 돋는다.

문의 : 인문학당 달리

(051-467-2004, blog.naver.com/whitenoise99)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베토벤의 삶과 음악

유혁준 음악칼럼니스트, 클라라하우스 대표



“나는 예술을 오직 가난하고
고통 받는 자들만을 위해서 창조할 작정입니다.”

(게르하르트 폰 베켈러에게 쓴 편지 중에서)

베토벤은 철저히 ‘인간’이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언제나 비상(飛上)하기를 원했다. 세상에 군림하는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인간애’의 구현을 위해 날아올랐던 것이다. 바흐가 저 천상에서 조화로운 음의 향연을 구현했다면 베토벤은 인간들 속에서 처절하게 부대끼면서 끝내 한줄기 빛을 찾아 천국에 이르고자 했다.

탄생 250주년을 맞은 악성(樂聖)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와 함께 클래식 작곡가로는 가장 위대한 거장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토벤은 가깝고도 먼 사이이다. ‘운명’, ‘월광’, ‘비창’, ‘전원’, ‘합창 교향곡’ 등 표제 내지 별칭이 붙은 대중적인 음악을 제외하고 베토벤을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유명한 곡들조차 안으로 깊게 들어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베토벤 음악은 기본적으로 오락과 여흥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토벤이 지향했던 이데아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와 인류가 하나 되는 세상의 구현이었다. 그래서 베토벤 음악의 걸모습은 언제나 진지하고 무겁고 딱딱하다. 이 표면에 나타나는 음악적인 장벽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 속에 숨겨진 인간미와 사랑 같은 ‘참모습’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혁준의 음악이야기’ 3분기 강좌는 250년 생일을 맞은 베토벤을 축하하고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베토벤 음악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 ‘인간 베토벤’을 탐구한다. 굳건한 형식미 속에 감춰진 따뜻한 사람 베토벤은 어떨까. 어쩌면 슈베르트, 슈만, 나이가 가슴으로 들어야 하는 차이콥스키보다 더한 휴머니즘이 철철 넘칠지도 모른다. 음악가 베토벤 이전에 인간 베토벤을 먼저 바라보아야 비로소 그 의미에 근접할 수 있다. 베토벤의 아버지보다는 베토벤의 어머니가 더 소중한 이유다. 그리고 모차르트! 인터넷과 베토벤 관련 책에 나타나는 하이든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대 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에게 직접 들었던 내용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베토벤은 모차르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무수히 많은 음악에 모차르트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아니 어떨 때는 그대로 베끼기까지 했다. 유유상종이라 했다. ‘혁명가’ 모차르트의 심성은 베토벤에게 온전히 대물림되었다. 한 예로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 주제는 이미 모차르트가 1777년에 작곡한 모테트 ‘주님의 인자하심(Misericordias Domini)’ K.222에 완벽한 형태로 등장한다.

이 얼마나 멋진 선후배의 조화인가! 피아노 협주곡 4번, 5번 도입부의 독주 피아노의 카덴차는 역시 1777년 모차르트가 쓴 피아노 협주곡 9번 ‘주님’ K.271과 판박이다. 그리고 수많은 모차르트 주제에 의한 음악들. 1787년 빈을 처음 방문해 꿈에도 그리던 모차르트 만나 면전에서 ‘돈 조반니’ 즉흥곡을 연주해 “이 청년은 장차 세상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는 찬사를 들었던 베토벤. 이후 베토벤에게 모차르트는 음악의 멘토이자 인생의 이정표와도 같았을 것이다. ‘음악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베토벤의 ‘모차르트 따라하기’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악보를 비교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최고의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들의 연주는 진정한 감동을 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헤르베르트 게겔, 예프게니 므라빈스키, 클라우스 텐슈테트 등 과거의 거장과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안드리스 넬손스, 클라우디오 아바도, 주빈 메타 등 살아 있는 마에스트로들의 불꽃 튀는 경합이 벌어진다. 1975년 30대 초반의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hammerklavier’ 소나타를 감상하고 2019년 78살의 폴리니가 뮌헨 헤르쿨레스홀에서 실황으로 보여주는 피아노 소나타 30번 3악장 ‘노래 부르듯이 마음속으로부터 감동을 가지고(Gesangvoll, mit innigster Empfindung)’를 들어보라. 삶의 마지막에 도달해 천국을 갈망하는 폴리니의 고백이 거기에 있다.

“예술은 영원하나 인생은 덧없다. 예술의 생명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 대지의 숨결이 쾌히 신의 영감과 만나게 해주다면 우리는 이 순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피아노 소나타 30번을 작곡할 당시 베토벤이 쓴 일기는 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1994년에 개봉했던 베토벤의 삶을 다룬 영화 ‘불멸의 연인’. 영화 전반부, 베토벤이 사랑하는 귀차르디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한 무리의 귀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비켜야 해. 이제 귀족들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만 해도 체포되었지. 하지만 지금은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겁먹고 있지. 왜 가발 유행이 끝난 줄 알아? 왜냐하면 모두 단두대의 제

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모두 나폴레옹을 두려워하고 있어. 내 교향곡의 주제가 바로 나폴레옹이라고.” 베토벤이 연인 귀차르디에게 하는 이 대사야말로 ‘영웅 교향곡’의 정수이자 베토벤의 정의로움과 모차르트와 함께 평등사회를 꿈꿨던 원대한 꿈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베토벤의 성격은 오페라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다. 여성 차별이 극대화돼, 불륜과 치정으로 얼룩지고 자극적이어야 인기를 얻는 오페라는 베토벤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아마 푸치니는 베토벤을 만났으면 혼쫓이 났을 터였다. 그래서 베토벤은 ‘잔 다르크’와 같은 여성을 찾아 단 하나의 오페라 ‘피델리오’를 남겼다. ‘피델리오’ 이후 어떠한 대본도 베토벤의 이상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1827년 3월 26일 이승에서 그토록 걱정으로 가득했던 위대한 거장은 천국에 이르렀다. 유언에 따라 피아노 소나타 12번 ‘장송행진곡’이 연주되면서 시인 하인리히 안슈츠가 조사를 낭독했다. 운구 행렬 속에는 햇불을 든 슈베르트도 있었다. 무려 2만 명의 빈 시민이 장례식에 참석했다. 수십 구의 시체 구덩이에 던져져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모차르트에 비하면 베토벤은 죽어서 행복했다.

“공기의 떨림은 신의 숨결이야. 인간의 영혼에 속삭이는 신의 언어지. 우리 음악가들은 신과 최대한 가까이에서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입술을 읽지. 우리는 신을 신을 찬양하는 신의 자녀들을 낳고… 그것이 음악가가 존재하는 이유야, 안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영화 ‘카핑 베토벤’에서 베토벤이 안나 홀츠에게 힘주어 말하는 이 장면은 음악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이자 물질과 겉모습에 얽매어 정작 자신의 내면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현대인에게 던지는 악성(樂聖)의 경고 메시지다.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개관_다시 뛰는 부산, 시민희망음악회 베토벤 : 운명 속의 거인, 희망을 노래하다



지휘 최수열

지휘 이기선

피아노 유지수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개관을 기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무대 '다시 뛰는 부산, 시민희망음악회'가 7월 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1973년 개관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노후화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은 시설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일 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과 만나게 됐다. 특히 이번 대극장 무대시설 리모델링은 무대를 사용하는 실제 공연예술가 및 무대 작업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 다양한 연출효과 구현이 가능해짐으로써 최근 건립된 공연장과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시민희망음악회에서는 '베토벤: 운명 속의 거인,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테마로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운명과의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한 기쁨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베토벤 교향곡 '제5번'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며, 이어 희망과 기쁨, 환희를 노래하는 베토벤의 '코랄판타지'를 이기선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 피아

니스트 유지수의 연주로 들려준다. 이어 마지막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태평소와 풍물놀이'로 신명을 더해준다.

베토벤의 '코랄판타지'는 피아노 협주곡에 성악과 합창을 결합시킨 파격적인 형식의 작품으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의 초석을 이루는 곡이다. 크게 피아노 독주,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협주,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합창의 협주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총신대학교 교회음악회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유지수가 연주하고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 노래한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피아노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세계를 무대로 초청독주회 및 협연, 실내악 무대를 통해 호평받은 유지수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연주, 피아노 1Piano 4Hands 전곡연주, 피아노와 함께하는 세계여행 시리즈 등 다양한 기획 시리즈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료계 종사자, 자원봉사자, 보건·소방·경찰·교육 공무원 및 예술가 등을 초청, 감사와 화합의 무대로 마련된다. 또한 공연이 열리는 7월 3일 대극장 로비에서는 지난 48년간 부산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들 추억 속 한켠에 자리한 부산시민회관의 모습이 담긴 특별 사진전 '그 기억의 흔적'을 개최한다.

- 일 시 7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입장료 초대(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신 의료진, 소방, 경찰, 지역상공인, 방역관계자 등)
-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로망스



지휘 이민형

비올라 김가영

● 연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클래식음악으로 초여름 밤을 수놓을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로망스'가 7월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하다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영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 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작곡한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비롯해 브루흐의 '로망스', 생상스의 '바카날 춤',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 등 연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로망스가 담긴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첫 곡인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엘가에게 음악적 영감을 선사하는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 엘리스'에게 결혼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한 곡으로 유명하며, 첫 악장에서부터 마지막 3악장까지 낭만과 서정성이 짙게 배어 있다. 이어지는 곡은 비올라에 대한 남다른 흥미와 열정을 갖고 있던 작곡가 브루흐가 73세에 작곡한 클라리넷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로망스'로, 비올리스트 김가영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

영은 뉴욕 매네스 음대 졸업 후 2002년 Hartwick University Summer Music Festival 초빙교수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뉴저지 Rowan University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03년 귀국한 김가영은 금호 초청독주회를 비롯해 린덴바움 뮤직페스티벌, 오스트리아 레히 클래식 뮤직페스티벌, 부산국제음악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등에 초청받았으며 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팝스콘서트, '친절한 금희씨, 베토벤을 만나다' 전국순회연주, 칠포국제 재즈페스티벌, EBS 공감, KBS 클래식 오디세이, KBS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크로스오버 1집 'Flor de Tango'를 시작으로, 자신이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한 가영 2집 'Tango de Carmen'과 단독 프로듀싱으로 발매한 3집 '상송 드 비올라'로 전국을 순회하며 다양한 공연과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2부에서는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곡으로, 역동적이면서도 관능적인 축제의 춤을 추는 이교도적인 풍경을 묘사한 '바카날 춤'에 이어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마치 음악으로 옮겨놓은 듯한 차이콥스키 특유의 멜로디 기법과 하모니가 살아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을 들려준다.

- 일 시 7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명품 재창작관현악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1980년대 위촉한 창작관현악곡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창작관현악곡으로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 '명품 재창작관현악'이 7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정수 예술감독의 지휘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창작관현악곡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곡 중에서도 부산을 소재로 한 창작곡으로, 현대적인 작곡컨셉과 창작변용을 통해 부산의 정서를 담은 새로운 레퍼토리로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은 지난 198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연주회에서 초연된 황익중 작곡 '만선'으로, 지휘자이자 작곡가로 활동중인 김성경의 재작곡으로 선보인다. 모두 7악장으로 구성된 '만선'은 제7회 대한민국작곡상 수상작으로, 어부들의 생활의 터전인 바다에서 일어나는 애환과 만선의 기쁨을 그린 작품이다. 김성경의 '만선/2020'은 5악장으로 새롭게 재구성, 주제선율과 이야기는 살리면서 악기 편성과 화성적 확대 등을 통해 좀 더 풍성한 느낌을 주며, 원곡에 담긴 남도민요 '벚노래'는 전통소리와 남성 2부 합창으로, 그리고 진도씻김굿의 '훈맞이 노래'를 통해서 원곡의 초혼굿을 대신하여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2020년

에 영면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넋을 함께 달래본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와 부산시립합창단 남성합창단이 함께 한다.

이어지는 곡은 이상규 곡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현악'을 모티브로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광시곡으로 재작곡한 이경은의 '강해연가(腔海戀歌)'로, 밀양아리랑의 선율을 템포 변화와 변주를 통해 악기의 기교적인 면을 살리고 금관이 없는 국악관현악 편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속성 유물 타악기를 더하여 자유로운 악장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창작국악관현악의 문을 연 작곡가 김기수의 '청사포 아침해'를 작곡가 이정호가 새로운 감성으로 해석한 '바다'에 이어 마지막 무대에서는 1985년 위촉곡인 이강덕 작곡 '오륙도'를 작곡가 이지영이 '오륙도의 별헤는 밤'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지영은 원곡에 표현된 절경에 부딪히는 파도소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묘사하고 고인의 곡 해설에 제시된 '순정률과 국악관현악의 전조'에 대한 고민을 거쳐, 파도가 넘실대듯 자유로운 전조를 통해 새로운 국악관현악으로 들려준다.

- 일 시 7월 14일 화요일 오후 8: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5회 정기연주회 이탈리아 음악휴가



-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음악선물 '이탈리아 음악휴가'가 7월 21일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티롤주립극장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홍석원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첫 만남을 갖는 이번 무대에서는 밝은 에너지로 가득찬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교향곡'과 고대 로마의 영웅 코리올라누스 장군을 모티브로 한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 이탈리아 작곡가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와 함께 이탈리아로 음악휴가를 떠난다.

한국인 최초로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오스트리아에서 오페라극장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홍석원은 지난 2015년 30대 동양인으로서 파격적으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티롤주립극장의 수석지휘자로 선임된 후 오스트리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를 성공적으로 지휘, 평론가와 언론의 호평 속에 보수적인 오스트리아 음악계에서 인정받으며 5시즌째 유럽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한국지휘자협회로부터 최우수 신예 지휘자로 선발되는 등 남다른 재능을 보인 홍석원은 독일 베를린 국

립음대 지휘과 디플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 점수로 졸업했으며, 독일음악협회가 지정한 '미래의 마에스트로 10인'에 선발된 바 있다. 하이팅크, 마주어, 블롬슈테트, 정명훈 등 세계적인 대가들로부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유럽의 대표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남독일방송교향악단, 브레멘 필하모니,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등과 성공적인 연주를 마쳤으며 오페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독일 라이프치히 오페레타 콩쿠르에서 청중상을 획득하고 스위스 베른 오페라극장, 독일 마인츠 국립극장 등 세계 유수 오페라극장에서 데뷔하여 호평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탈리아의 찬란한 태양과 화려하고 색채감 넘치는 자연을 낭만적으로 그려내면서 그의 교향곡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비극적 삶을 살았던 5세기경 로마의 영웅인 코리올란의 이야기를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으로 그려낸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 '관현악의 시인'이라 불리는 레스피기가 로마의 유서 깊은 소나무 네 그루를 소재로 고대 로마의 향수와 환상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담아낸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를 들려준다.

- 일 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Preview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0 Summer Fantasy 'Romantic Concert_김동률 편'



지휘 전진

- 부산시립합창단이 매년 여름 선사하는 시원한 음악 선물 '2020 Summer Fantasy'가 7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Summer Fantasy'는 주옥같은 국내가요를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공연으로, 매년 하나의 테마가 있는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앞서 가수 이문세와 조용필, 김광석의 명곡을 합창음악으로 편곡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부산시립합창단은 올해 따뜻한 감성의 싱어송라이터 김동률의 대표곡들로 로맨틱한 무대를 선사한다.

지난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듀오 '전람회'로 참가,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데뷔한 김동률은 이듬해 첫 히트곡이었던 '기억의 습작'이 수록된 전람회 1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규 6집과 디지털 싱글, 라이브 앨범, 리패키지 앨범 등을 발매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1997년에는 가수 이적과 프로젝트 듀오인 '카니발'을 결성하여 가수 인순이가 리메이크 하여 더 유명해진 '거위의 꿈', '그땐 그랬지' 등을 발표했으며, 2010년에는 가수 이상순과 베란다 프로젝트로, 2014년에는 토이의 객

원보컬로도 활동했다. 가수 유희열이 김동률을 '저음 바이브레이션의 대가'라고 칭했듯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보컬과 서정적이면서도 진솔한 노래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아이처럼, 여름의 끝자락, 고백, 희망, 그땐 그랬지, 취중진담 등 김동률의 수많은 히트곡을 부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와 밴드의 웅장한 사운드 구성에 맞게 편곡하여 원곡과는 다른 느낌의 합창음악으로 관객과 만난다. 전진 지휘자는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음악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기운이 가득 차는 치유의 힘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연인, 가족, 친구 등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쉽고 친근한 곡들로 구성된 만큼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객석 거리두기로 좌석을 배치, 공연을 진행한다.

- 일 시 7월 23일 목요일 오후 8: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Preview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 한여름 밤, 연인들이 펼치는 유쾌한 사랑의 소동, 서울발레시어터의 창작발레 '한여름 밤의 꿈'이 부산을 찾는다.

서울발레시어터의 가족발레 시리즈의 대표 레퍼토리인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숲 속 요정의 실수로 엇갈려버린 연인들이 다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발레로 그려낸 작품이다. 지난 2015년 대전 예술의전당과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원작의 유쾌함은 살리면서 안무가인 제임스 전의 재치 있는 안무와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더해 극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작품으로 재탄생됐다. '한여름 밤의 꿈'은 지난 2017년에는 제7회 대한민국발레축제에 초청되어 전석 매진에 가까운 객석 점유율을 보이며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2019년까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연되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테세우스와 히폴리타의 결혼식으로 분주한 아테네 신전. 허미아와 라이산더는 둘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피해 숲 속으로 도망간다. 이 때 허미아를 짝사랑하는 드미트리우스와 드미트리우스를 짝사랑하는 헬레나도 이들을 쫓아 숲으로 간다. 요

정의 왕 오베론은 이 젊은 연인들의 사랑을 이어주고자 그의 시종 펙과 함께 사랑의 묘약을 만든다. 하지만 펙의 실수로 허미아를 향했던 라이산더와 드미트리우스의 마음이 헬레나에게로 향하게 되는데... 과연, 엇갈린 연인들은 자신의 짝을 찾아갈 수 있을까?

특히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셰익스피어를 등장인물로 설정, 극을 이끌어가는 해설자로 무대에 등장시켜 작품 스토리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희극에서 발레로 장르가 변환되면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부분을 압축적으로 재구성하고 코미디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관객들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발레음악으로 사용된 멘델스존,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음악 또한 이 작품의 관람 포인트로, 시대를 넘나드는 음악적 구성을 통해 '요정의 숲'이라는 판타지 세계와 극중 인물들의 풍부한 감정선을 세밀하게 연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발레의 창작과 대중화'를 모토로 지난 1995년 창단된 서울발레시어터는 초대 김인희 단장과 예술감독 로이 토비아스, 2대 예술감독 및 상임안무가 제임스 전 등을 거치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발레단이다.

- 일 시 7월 25일-26일 토-일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48개월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 Odysseia FE2020b _녹(綠)Knock



김수현

-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가 선정을 위한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두 번째 무대가 7월 30일과 31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는 부산시립무용단이 그동안 가져왔던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전문가 추천제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가 정기공연에 참가, 전문가 평가 및 단원 의견 수렴, 관객들의 반응조사 등을 통해 수석안무자로 선임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3월, 관객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장 휴관으로 이번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11월, 이정윤댄스시어터 예술감독인 이정윤 안무가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는 주인공은 리을무용단, 배정혜춤아카데미 대표로 있으며 한국 춤의 전승과 대중적 확대를 실천해오고 있는 안무가 김수현으로,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 단장을 역임하며 지역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활동과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그만의 무용 철학을 성공적으로 구현해오고 있다. 김수현은 사람들의 깊은 삶에서 이야기를 찾고, 그것을 유쾌한 상상력과 해학, 긴 호흡의 강인한 에너지, 때로는 돌발적인

서정미와 눈물로 작품을 풀어내며 특히 관객과의 소통과 몰입의 경계를 과감하게 넘나들며 끊임없이 동시대 관객들과 교감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김수현 안무가는 부산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다채로운 빛깔의 춤옷을 입힌 ‘Odysseia FE2020b_녹(綠)Knock’을 선보인다. ‘푸른색(blue, 綠)’이 슬픔이자 희망을 상징하듯 부산 곳곳에는 고단한 삶을 희망으로 바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작품 속 배경이 되는 ‘깡깡이 소리’는 배 밑창이나 측면에 붙은 조개껍데기나 녹을 떨어내기 위해 배의 철판을 두드릴 때 울려 나오는 소리이다. 그 소리는 일제강점기부터 전쟁, 산업화 시대를 거처온 고단한 몸의 소리이며, 맨 손으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던 희망과 구원의 소리이다. ‘녹(綠)-Knock’은 삶의 몸짓이 만드는 깡깡이 울림을 통해 두드려 소리를 내고(Knock), 녹(綠)을 벗겨내면서 고단한 삶의 아픔들을 떨쳐낸 부산사람들의 삶이 생생한 춤사위로 펼쳐진다. ‘깡깡이’에서 찾은 위로와 희망의 두드림은 새로운 길을 여는 몸짓이며, 그 몸짓이 더 큰소리가 되고 모두에게 울림이 되는 순간, 또다른 역사의 길이 시작된다.

- 일 시 7월 30일-31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Preview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바이올린 로망스_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아나운서 박찬민



바이올린 김재원

-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인 (재)부산문화회관 마티네 콘서트가 7월 3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만의 새로운 브랜드로 탄생된 후 올해로 다섯 번째 시즌을 맞는 마티네 콘서트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이 있는 해설음악회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SBS 간판 아나운서이자 클래식 애호가인 박찬민 아나운서의 친근한 진행으로 여러 음악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올해 20년차를 맞은 베테랑 아나운서인 박찬민은 현재 SBS 대표 아침방송 프로그램인 '좋은아침'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7월에는 스위스 최고 오케스트라인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한국인 최초 부약장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이 피아니스트 이택기와 함께 '바이올린 로망스'라는 테마로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이 돋보이는 곡들로 무대를 꾸민다.

금호영재아티스트로 선정되어 한국 음악계에 데뷔한 김재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학사 졸업 후 프랑스로 유학,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만장일

치 수석입학 및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2016-17 라디오 프랑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단원, 2017-18 파리 국립오페라하우스 아카데미 단원, 2018 프랑스 릴 국립오케스트라 객원 부약장을 역임한 김재원은 지휘자 정명훈이 창단하여 주목받은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악장으로도 활동했다. 독일 클로스터 쉐탈 국제콩쿠르, 이태리 리피체 국제콩쿠르에서 최연소 입상하여 일찍이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은 후 홍콩 손펠드 국제음악협회 콩쿠르 입상, 브람스 국제콩쿠르 바디레핀 특별상 수상, 소피아 비르투오조 국제콩쿠르 2위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수상했으며, 2017년 프랑스 나테시스 반케 재단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크라이슬러의 '싱크페이션'과 '작은 비엔나 행진곡', '미드나이트 벨', 남편인 로베르트 슈만이 그녀에게 헌정한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로망스'에 화답하여 작곡한 클라라 슈만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3개의 로망스 작품 22', 드보르작이 '가정음악'으로 작곡한 '4개의 낭만적 소품 작품 75', 그리고 고도의 테크닉과 우아함을 갖춘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들려준다.

- **일 시** 7월 31일 금요일 오전 11: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두 형제의 삶을 통해 삶의 현주소를 질문하는 웰메이드 연극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가 부산을 찾는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무대에 오르는 이번 작품은 국내 주요 연극상을 휩쓸며 관객과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은 극단 골목길의 대표적인 우수 레퍼토리로 지난해 초연 당시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특별공연을 추가구성 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박근형을 주축으로 끊임없는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극단 골목길은 그동안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경숙이, 경숙아버지', '너무 놀라지 마라', '만주전선', '청춘예찬' 등 다양한 작품과 함께 박해일, 윤제문, 고수희, 엄효섭, 황영희 등 수많은 배우들을 배출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극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현재 극단 골목길 대표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출과 교수로 있는 박근형이 극작과 연출을 맡은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는 어린 시절 고향을 등지고 도회지로 나왔지만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평생 병방을 떠돌다 노인이 된 동생과 오롯이 땅을 일구고 살아왔지만 녹록치 않은 삶을 사는 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독한 더위에 긴 가뭄이 계속 되던 어느 날 동생은 형이 살고 있는 고향을 찾아간다. 그러던 중 서둘러 잘 나가는 직장 다니던 형의 아들이 고향으로 내려온다. 아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아내와 이혼 소송중이며 어떤 사건으로 법원의 출두 명령서를 받고 괴로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형과 동생이 성묘를 다녀온 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동시대의 삶의 온도와 체온을 그만의 방식대로 담아온 박근형은 이번 작품에서 두 형제의 애잔한 가족사를 통해 인간, 운명, 삶과 인생, 죽음 등을 묵직한 성찰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한편, 예리한 풍자와 웃음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특히 이번 작품은 '아이러니와 리얼리티를 넘나들며 현실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박근형 연출의 색깔이 잘 드러난 작품, 압도적인 연기양상은 작품의 가장 큰 힘이다'(이은경 연극평론가), '그래, 삶이란 이런거지'(한국연극 김미지 기자), '비극적 절망과 의문스러운 유머의 버무림, 박근형식 스타일 완성'(김미도 연극평론가) 등 평단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TV 드라마로 친숙한 연기자 방은희를 필두로 동아연극상을 수상한 배우 강지은, 성노진, 김은우, 그리고 서동갑, 오순태, 이호열, 한층은이 출연한다.

- **일 시** 7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8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입장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15세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제15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달라도 좋아! We are All Unique!

7. 7[㉠] ~ 7. 13[㉡]

영화의전당, 북구문화예술회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입장료 전석 4천원

문의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
743-7652, www.biky.or.kr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형 영상문화축제 '제15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이하 BIKY)'가 7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영화의전당과 북구문화예술회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펼쳐진다.

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상문화를 인지도시키고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지난 2005년 프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은 BIKY는 2015년부터는 매년 '달라도 좋아(We are All Unique!)'라는 주제로 획일화된 교육,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다양한 영화적 감수성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BIKY에서는 전 세계 61개국 176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프리미어 작품 수도 늘어나 지난해 총 123편에서 132편으로, 비경쟁부문에서는 장편 36편, 단편 49편, '리본더비키' 15편이며, 경쟁부문 '레디~액션!'에서는 32편이 처음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섹션별로는 우선 BIKY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공식 경쟁

부문인 '레디~액션!'을 주목할 수 있다. '레디~액션'은 영화 제작에서부터 선정, 상영까지 모든 과정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는 매년 늘어나는 출품 편수와 어린이·청소년 영화인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만 6세에서 12세 이하, 만 13세에서 15세 이하, 만 16세에서 18세 이하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는 44개국 392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어린이, 청소년 심사위원인 비키즈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13개국 40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레디~액션'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섹션인만큼 그들의 일상과 고민에서부터 꿈과 환상에 이르는 다채로운 주제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비경쟁부문은 총 8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내 안의 수많은 나 혹은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영화를 소개하는 '나를 찾아서'를 비롯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화합을 다룬 '너와 더불어', 차별이 아닌 차이, 다름을 껴안은 관용을 꿈꾸는 '다름 안에서', 신나는 모험과 설레는 미래의 상상이 가득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 올해 BIKY가 눈여겨보고 함께 하고픈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 '아시아 파노라마', 어린이, 청소년의 단편영화 초청부문 '리본더비키', 여름밤 온가족을 위한 '야외극장 달빛별빛' 등 주제별 섹션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경쟁부문 '레디~액션!'에서만 진행된 제작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영화제에 초청된 비경쟁부문 성인감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제도 '스페셜멘션'이 도입된다. '경계를 넘어서', '나

제15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막작 '말괄량이 빈티와 오카피클럽'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동안 포스터그림 전시와 특별체험전, 비키 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사진은 2019년 포스터 그림전시)

를 찾아서', '너와 더불어', '다름 안에서' 등 총 4가지 비경쟁부문에 초청된 작품들 중 장편 4팀에 각 200만원, 단편 4편에 각 100만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BIKY 15주년을 맞아 지난 BIKY를 되돌아보는 특별전 '완두콩극장'도 선보인다.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영화의전당 그린스퀘어에서 열리는 이번 상영전에서는 1회부터 14회까지 영화제의 개폐막작 중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 또,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동안에는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6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포스터그림 전시와 포스터그림 특별체험전, 그리고 누구나 참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비키 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올해 개막식은 7월 7일 오후 6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최되며, 개막작으로는 프레드리케 미곰 감독의 '말괄량이 빈티와 오카피클럽'이 상영된다. 작가이자 배우로 활동중인 프레드리케 미곰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콩코에서 벨기로 넘어온 불법체류자 빈티 가족과 그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난민문제라는 무거운 주제를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감정선의 전개로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올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레디~액션!' 상영작은 온·오프라인 상영을 동시에 진행하며, 오프라인에서도 대면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침체되었던 무대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4회 정기연주회
‘거장의 레제로’

◆ 박진홍 음악평론가

● 지난 6월 19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거장의 레제로’라는 주제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564번째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베토벤의 음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공연 무대에 강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는 공연이었다.

이날 연주의 제목인 ‘레제로(leggiero)’는 ‘가볍고 경쾌하게’라는 말로 거장이라는 말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 오랜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 온 관객들로 로비는 북적였다. 필자는 다시금 사람의 움직임으로 활기를 찾아가는 광경을 보며 제목의 의미를 조합해 보았다. 거장 베토벤의 레제로는 이날 연주된 세 작품이 가지는 특징에서 나온 말이다. 세 곡 모두 베토벤이 25세~30세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이후 작품들에 비해 보다 고전적이고 가볍다. 한 편으로 거장 백건우의 레제로는 그의 연주 스타일에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건반 위의 구도자’로 불리는 백건우의 연주는 화려한 기교로 관객들을 열광케 하기 보다는 간결하면서도 담백한 연주를 통해 관객들이 스스로 깊은 음악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무엇이 되었건 제목이야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으니 생각하는 것은 음악이 그렇듯 생각하는 자의 몫이다.

Review



이날 연주는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7년 만에 함께 하는 무대로 애호가들과 공연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그램 면에서도 평소 잘 연주되지 않았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교향곡 1번,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연주되어 흥미를 더했다. 이 곡들 모두 베토벤의 젊은 시절의 작품으로 후기 작품들이 규모나 음향, 편성 면에서 비약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기 전, 이전 세대의 음악적 스타일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색채를 만들어가던 시기의 비교적 가벼운 곡들이다.

먼저,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에서는 간결함과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사이를 뚫고 일어서는 오보에의 선율,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이어지는 바이올린의 안정된 속주가 인상적이었다. 인간을 창조하는 신의 손놀림을 연상케 하였다. 이어서 몰아치는 후반부의 연주에서는 몸 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기적 자극을 받으며 깨어나는 듯 생명력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무대에 올랐다. 75세 피아노 거장의 등장에 무대와 객석이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크게 보냈다. 피아니스트는 얼굴에 많은 표정을 담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지휘자에게 담담한 미소를 보내자 오케스트라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긴 서주 이후, 거장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는 '건반 위의 구도자'라는 별명에 맞게 서두르지도 과시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숨 쉬며 섬세하고 민첩하게 건반 위를 산책했다. 마치 루체른 호수를 산책하는 베토벤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건반을 바라보는 눈은 지나온 세월을 되살피듯 은은했고, 그 눈길의 끝에서 온갖 아름다운 선율들이 피어올랐다. 1악장의 카덴차에서는 차분하게 시작하여 점점 드라마틱한 전개로 이어가며 변화를 주었다. 이어서 관객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2악장이 연주되었다. 오케스트라가 다소 거칠게 앞섰을 풀어 헤치면 피아노가 짙은 여운이 남는 감성의 덩어리를 마음 한 칸에 쑤욱 밀어 넣었다. 그렇게 피아노가 흔들어 놓으면 다시금 오케스트라가 부드럽게 그 마음을 어루만졌다. 후반부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관객을 쏙 빼놓고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며 지나 온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관객들은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3악장에서 피아니스트는 시간, 공간, 나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로움

을 건반 위에 펼쳐 보였다. 오케스트라 역시 피아노를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후반부 첫 곡으로 베토벤 교향곡 1번이 연주되었다. 젊은 베토벤의 첫 교향곡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사뭇 목관의 비중을 높였다. 이전 작품에서 보다 다이내믹을 더욱 강조하였는데, 최수열의 지휘는 견고하지만 생기가 있으며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작곡가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의 바통은 짧지만 그 영향력은 오케스트라의 어느 한 점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유려하면서도 섬세한 연주, 그러나 날카롭지 않아서 부드럽게 마음을 파고드는 연주였다.

마지막 곡으로 아르투로 마르케스의 단조 2번이 연주되었다. 이 곡은 쿠바와 멕시코 지역에서 유행하는 2박자의 춤곡을 마르케스가 시리즈로 만든 작품 중 하나이다. 남미 특유의 열정이 당김음과 셋잇단음표, 시시각각 변화하는 빠르기를 통해 나타나는 이 곡은 그 흥겨움에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곡이다. 베토벤의 서곡, 협주곡, 교향곡 뒤에 남미의 춤곡이라니. 혹시나 다음 프로그램을 예고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몰아치는 선율과 타악기의 강렬한 리듬에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재미있는 것은 역동적인 지휘봉 그리고 그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에 비해 양증맞기까지 한 마에스트로의 몸짓이었다. 남미의 강렬한 리듬과 템포를 흔들림 없이 만들어 내면서도 음악을 타는 최수열의 부드러운 몸짓은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구스타보 두다멜과는 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주자도 관객들도 완성도 높은 공연에 대한 갈증이 심했는데, 이날 공연은 그런 욕구를 시원하게 해소해 주는 공연이었다.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많은 연주단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사라지는 꿈 앞에서 서성이다

한병하 사진전 드림랜드
2020. 5. 16~6. 7
갤러리 네거티브

◆ 이민정 공학박사, 건축이론·비평

● 드림랜드. 기울어진 버스정류장 표지판에 또박또박 적힌 글자가 푸르다. 뒤로는 붉게 녹슨 가로등이 높이 섰다. 깊은 하늘, 구름이 스친다. 온기가 흐릿하다. 성근 햇살과 서먹한 비바람이 살피낸 잡초들이 무심하다.

시선이 위를 향한다. 나무로 만들어진 롤러코스터가 위태롭다. 설익은 흥분이 기억 저편에서 마모되고 삭아간다. 멀리 새들이 있다. 더러는 앉았고, 더러는 난다. 난다. 하늘을 난다.

깨진 창은 걸림을 모른다. 닿고 싶은 곳까지 그욕이 닿는 햇살. 바람은 스스로를 움직인다. 군데군데 빛바랜 초록이 일렁이면 무성한 풀내음이 번지는 듯하다. 반짝이는 인화지마다 빛을 머금고 번져나온 색감이 따스하다. 전날 내린 비에 아직 물기 어린 바닥에서도, 한동안 전과 같이 내리쬐는 햇살에 건조해진 공기에서도, 담담함이 풍겨 난다.

사진가 한병하는 2020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갤러리 네거티브에서 펼친 이번 전시에서 일본 나라 현의 폐장한 놀이공원 '드림랜드'를 선보였다. 스무 평 남짓한 차분한 전시 공간에는 16×20in 열여덟 점, 11×14in 열다섯 점, 8×10in 한 점, 총 서른네 점의 사진이 걸렸다. 1961년 개장한 드림랜드는 전성기에는 1년에 170만여 명이 찾기도 했으나, 점차 운영 적자를 겪었고 2006년에 결국 문을 닫았다. 폐장 후 철거가 완료된 2017년까지는 10년의 세월 동안 그저 방치되었다.

작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5년여 동안 드림랜드를 찍었다. 일본 여행 중 텔레비전 방송에서 우연찮게 드림랜드에 관한 뉴스를 접한 것이 계기였다. 평소 일상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는 것들을 눈여겨본다는 그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없어질 것 같은 곧 버려질 사물이나 풍경을 사진으로 남겨왔다. 그런데 드림랜드는 달랐다. 그곳에는 이미 수명을 다한, 버림받은 것들로 가득했다.

Review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웃었을까. 혹은 울었을까. 멀리 창밖을 내다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돌아간 사람들의 삶에는 그 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부푼 꿈과 희망, 신나고 재미난 것들로 가득한 곳, 언제나 다시 찾고 싶었던 그곳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간다. 장소는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된다. 마침내 전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어떤 곳으로 바뀌어 버린다. 회색빛 상념이 버거워질 때 즈음, 작가 또한 생사가 얽치락뒤치락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삶의 이치를 생각하며 뭘지 모를 서글픔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그렇다고 버려진 사물들이 만든 거대한 폐허의 경관이 실망과 절망, 혹은 어둠과 슬픔으로만 표현된 것은 아니다. 작가의 이미지에는 자칫 부정의 것으로 치우치기 쉬운 파괴되는 물질적 풍경 위로 미소(微少)한 긍정의 기운, 낭만적 고요, 아름다움이 겹겹이 쌓여있다. 작품 하나하나에 가만히 들어가 사진가의 눈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전시장 내부를 섬세하고 그윽하게 메우며 피어나는 미묘한 분위기에 도취된다. 한때는 흥분과 즐거움, 환상과 생기로 가득 차 있었을, 그러나 이제 버려진 장소의 기운을 담아내는 사진가의 시선에서 절제된 감정이 느껴진다. 넘어진 것과 서 있는 것, 깨어진 것과 온전한 것, 녹슨 것과 푸르른 것의 대비가 야단스럽지 않다, 대조되는 기운을 배가하면서도 하나로 묶어주는 빛의 농담(濃淡)이 관상적(觀想的)이다. 사진가가 두 발로 걸음을 옮기던 곳, 따스한 햇살을 받고, 스산한 바람의 스침을 느꼈던 곳, 많은 구름과 비를, 무수한 꽃과 풀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사람의 웃음소리는 상상해야 했던 곳.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세상에서 사라진 곳. 사진가가 담은 드림랜드, 바로 그 현실 공간은 작가의 지각과 감성적 표현을 거치며 관람자 각자의 정신 속으로 연장된다. 비로소 '이미지'가 된다. 현실 세계와 꿈이 이어진다. 이어지며 움직인다.

작가는 말한다. 사진의 내용은 즐거운 것일 수도, 슬픈 것일 수도, 아프고 괴로울 수도, 사회적으로 시사적인 것일 수도,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내용이 무엇이건 그가 만지는 모든 이미지에서는 인간적인 따스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노력한다고 한다. 사진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다 하는 때까지 수년에 걸쳐 먼저 무수히 촬영한 다음 그곳을 떠올리며 사진을 고른다. 그러면서 다시 보고 느끼며 전하고 싶은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깊이 있게 생각한다. 전시장의 규모, 그에 맞는 작품 크기와 프린트 퀄리티, 인화지와 액자의 종류 및 마감의 수준까지도 사진전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요소로 다룸은 물론이다. 사라진 드림랜드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부산을 찾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잠시 하나들 떠오르는 흩뿌연 조각들을 만지작댔다. 단지 어릴 적 놀이공원에서 보낸 추억과 그에 뒤따르는 멜랑콜리만은 아니다. 사라질 것들, 흩어질 것들,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삶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과정에서 이미 폐허로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안에서 생명은 잠시간의 열은 흔적일 뿐 아니던가. 현실세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체험되고 기억이 된 생명의 흔적은 각자의 세계 속에서 바깥 세계와는 다른 고유한 방식으로 조직된 꿈의 집일 뿐 아니던가. 세계는 결국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며,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것이다. 이 고립된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인은 체험이 쌓아가는 기억과 꿈을 현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한계적 즐거움과는 다른 행복, 나아가 나의 행복 아닌 공동의 행복을 찾아 이곳에 왔을 사람들. 그리고 드림랜드. 사라지는 꿈 앞에서 서성었다. 가상과 부재의 나라가 주는 허망함을 부정하고 떨쳐버리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전시에 발견했던 사진가의 시선을 다시 떠올렸다. 예정된 '없음'을 향해 흘러가는 폐허의 풍경에서도 따뜻한 빛과 반짝임으로 여전히 삶의 꿈을 배려하는 시선이 쾌적하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 꿈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은 아니다. 세심하고 부드러운, 맑고 따뜻한 배려의 시선은 파괴로부터 사라지는 것을 보호한다. 지켜낸다.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쉰다. 잠시 안도한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공연
재있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일 시 | 7월 2일(목)-3일(금), 9일(목) 오전 10:30
중극장[단체관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607-3110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부산광역시 교육청과의 ‘2020 초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협약’에 따라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의 문화현장 교육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재있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은 초등학생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곡과 뮤지컬 넘버, OST, 동요 등을 선곡한 눈높이 프로그램으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이명근의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서곡, ‘더 이상 날지 못하리’
하이든/교향곡 제94번 ‘놀람교향곡’ 제2악장 등 수곡
• 소프라노/남순천 • 바리톤/김태우

2020 부산음악축제

일 시 | 7월 2일-3일 목-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사)부산음악협회가 매년 마련하는 부산음악축제 2020년 무대.

2일에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부산지역 7개 대학의 전공 우수졸업생들의 데뷔무대로 마련되는 ‘신인음악회’에 이어 3일에는 고전 클래식부터 현

대음악까지 시대를 초월한 가치인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 시대를 초월한 가치’가 선보인다.

2일 신인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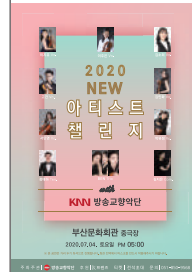
박진주, 김다영, 김성주, 이지원, 심은아, 신유정, 홍미리, 정은주, 김경희, 이하영, 홍예지, 이진아, 이신영

3일 사랑, 시대를 초월한 가치

H&M듀오, BMPO, JM양상블, 주창근, 부산시민관악단, 문화공작소 빈체로, 부산현악4중주, PER DIO(빠르디오)

2020 NEW 아티스트 챌린지
with KNN방송교향악단

일 시 | 7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지난 2016년 창단 후 부산, 경남지역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와 인재육성에 앞장서온 KNN방송교향악단이 지역의 차세대 연주자들과 함께 하는 2020 NEW 아티스트 챌린지.

프로그램

하이든/바이올린협주곡 제1번 1악장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슈만/첼로협주곡 1악장 등 수곡
• 지휘/박진(KNN방송교향악단 부지휘자)
• 바이올린/김소희, 이주은, 이지유, 고건, 김민화
• 첼로/박유진, 서민영
• 실내악/Ben trio(피아노 김보은, 바이올린 고은비, 첼로 박예리나)
• 작곡/김지은 • 테너/정태하

부산시립극단 제67회 정기공연
갈매기

일 시 | 7월 3일(금)-1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중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23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었던 부산시립극단 2020년 첫 정기공연 ‘갈매기’. ‘체홉 시리즈’ 그 첫 무대로, 체홉의 첫 장막 희곡인 ‘갈매기’를 예술감독 김지용의 연출로 선보인다.

19세기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였던 체홉은 특히 희극에 있어 역사나 로맨스를 배제하고 일상에서의 인간 심리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유진 오닐, 테네시 윌리엄스 같은 20세기 극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근대연극의 창시자로 꼽히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희곡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고 있을 만큼 널리 사랑받고 있다.

지난 189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된 ‘갈매기’는 당시 흥행실패도 모자라 엄청난 혹평에 시달렸으나, 1898년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출로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재상연되어 유례없는 극찬을 받았다. 체홉의 ‘갈매기’는 체홉의 새로운 극작 원칙과 주제가 본격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으로, 그의 객관적 사실주의가 근대연극의 주류로 부상하게 될 것을 예고한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부산시립극단의 ‘갈매기’는 무대 위에 새롭게 원형무대를 구축함으로써 관객들이 풍경이 아닌 극 속의 현실적인 관찰자로 새로운 시각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을 비롯해 지난 4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8명의 객원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

이번 무대는 공연 특성상 공연 시작 시 입장이 불가하며 7월 11일 공연을 마친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 원작/체홉
- 각색, 연출/김지용

제7회 앙상블 게네랄파우제
기획연주회

일 시 | 7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주)게네랄파우제 463-3927



음악이 함께하는 카페 ‘게네랄파우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작품을 들려주고 있는 앙상블 게네랄파우제의 7번째 기획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목관악기 앙상블과 라흐마니노프의 눈물나도록 아름다운

멜로디 ‘보칼리제’와 그의 주옥같은 가곡들,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와 칠레아의 아리아를 들려주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 도흐나니의 6중주를 들려준다.

앙상블명인 ‘게네랄파우제(General Pause)’는 독일어로 ‘돌연히 악곡의 흐름을 멈추고 모든 악기가 쉬는 것’이라는 의미의 음악용어이다.

양상블 자비에 제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7월 5일 일요일 오후 6:00 **첼버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양상블 자비에 010-4006-0059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를 주축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유효정, 비올리니스트 김규, 첼리스트 김민승으로 이루어진 양상블 자비에의 무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대, 줄리어드 음대, 뉴잉글랜드 음악원 동문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음악사랑을 나누기 위해 결성된 양상블 자비에에는 그동안 연주회를 통해 들어온 수익금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음악인들을 위해 기부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카사도 '첼로모음곡', 라벨 '바이올린 첼로 듀오', 보로딘 '현악4중주 제2번' 등을 들려주며, 연주회의 수익금 전액은 부산 소년의 집에 기부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로망스

일 시 | 7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연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클래식음악으로 초여름 밤을 수놓을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로망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하다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비올리니스트 김가영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 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작곡한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비롯해 브루흐의 '로망스', 생상스의 '바카날 춤',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 등 연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로망스가 담긴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올리니스트 김가영은 지난 2003년 귀국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연주 김연정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7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첼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연정 010-6844-2533



깊이 있는 음악해석과 폭넓은 음악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정 독주회. 경희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도미, 신씨네티 대학에서 연주석사(M.M.)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전액장학생으로 연주박사(D.M.A.)를 취득한 김연정은 2014년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윤이상 곡을 연구 발표하는 등 해설을 통한 연주를 통해 현대작곡가를 소개해오고 있다. 김연정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로도 발탁되어 미국 현지 단원으로 구성된 Sassmannshaus Tradition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현재 프라미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총감독 및 지휘자, 브니엘예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베토벤 소나타 제1번과 9번을 들려준다.

제갈삼 교수 기네스 음악회

일 시 | 7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전화신청자에 한함)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올해로 만 95세인 부산의 원로 피아니스트 제갈삼 선생이 세계 기네스에 도전하며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후진양성에 힘써오다 부산대학교를 정년퇴임한 제갈삼 선생은 부산음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 예술부문 대상, 부산시 문화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제갈삼 선생은 지난 2016년 만 91세로 망백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친 후 올해 95세의 나이로 본인의 이름을 건 음악회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 우정출연/피아노 한동일, 소프라노 김유섬, 피아노 이화영선, 부산피아노트리오(바이올린 백재진, 피아노 권준, 첼로 이일세)

부산예술가곡 희망콘서트

일 시 | 7월 1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예술가곡 010-3884-4623



창작가곡 활성화와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창단한 부산예술가곡의 무대. 창단 6주년을 기념해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윤상운 • 대표/조신미 • 운영위원장/신재철 • 특별출연/테너 국인철 • 테너/정량부, 심민보, 문형준, 안병규 • 바리톤/배웅, 강양수, 박용호 • 소프라노/최영순, 박성애, 최성자, 이글라라, 김민주 • 메조소프라노/임명자 • 연주/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명품 재창작관현악

일 시 | 7월 14일 화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1980년대 위축한 창작관현악곡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창작관현악곡으로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 '명품 재창작관현악'.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정수 예술감독의 지휘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창작관현악곡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곡 중에서도 부산을 소재로 한 창작곡인 '만선(황의중 곡)',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현악(이상규 고)', '청사포 아침해(김기수 곡)', '오륙도(이강덕)' 등 4곡으로, 현대적인 작곡컨셉과 창작비용을 통해 부산의 정서를 담은 새로운 레퍼토리로 선보인다. • 작곡/김성경, 이경은, 이정호, 이지영

강민정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7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첼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영혼을 울리는 음악성과 카리스마의 연주자’로 호평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강민정 독주회.

서울대학교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석사), 맨하탄 음대(최고연주자과정)를 거쳐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강민정

정은 그동안 뉴욕, 시카고, 미시간, 덴버,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 초청독주회와 국제음악제에 참가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연주자로서뿐만 아니라 기획 및 제작자로 독일 자브뤼켄음대 국제교류프로그램 총감독 및 한국문화재단 ‘Climax of Rhythm’ 자문위원을 맡아 한국, 독일간의 음악을 통한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에 힘써온 강민정은 귀국 후 고향인 부산에서 활발한 연주활동과 함께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예술중학교 강사 및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으며 제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BCMS와 함께하는 생상스와 브람스의 밤

일 시 | 7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지난 2018년 부산지역의 문화 부흥과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실력있는 연주자 7명으로 결성된 BCMS(Busan Classical Music Society) 앙상블의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김유리, 비올리스트 김은진, 박나윤, 첼리스트 정지은, 이동열, 피아니스트 김정권 등 기량이 뛰어난 연주자들의 환상적인 호흡과 인상적인 해석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BCMS 앙상블은 올해 7월 대전국제음악제에 초청받아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프로그램
 생상스/피아노5중주 가단조 작품 14
 브람스/현악6중주 제2번 사장조 작품 36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일 시 | 7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18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만 18세 이상 입장가능)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5년 연속 매진, 객석 점유율 90%를 자랑하는 국립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지난 2014년 초연된 국립창극단의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잃어버린 판소리 일곱 바탕 중 하나인 ‘변강쇠타령’을 요즘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애뜻한 사랑 이야기로 각색하여 매년 국내외 무대에 오르며 국립창극단의 대표작이자 창극계 스테디셀러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고전의 파격적 재해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변강쇠와 옹녀의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와 풍성하고 흥겨운 음악 그리고 능청스런 연기력을 겸비한 소리꾼들의 소리 성찬까지 더해져 공연 내내 흥이 넘친다.

테너 조윤환 독창회 with Friends

일 시 | 7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매력적인 음색과 더불어 감성적으로 노래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테너 조윤환 독창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한 후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원,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원 마이스터 엑자멘 과정을 졸업한 조윤환은 독일의 평론가로부터 ‘빛나는 테너의 빛깔’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기타리스트 고충진, 고성현이 우정 출연하여 감동이 있는 무대로 꾸민다.

- 사회/아나운서 손지현
- 연주/미래 필하모니 앙상블
- 기타/고충진, 고성현 • 피아노/이승윤

부산시립예술단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공연 열씨구 樂

일 시 |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30 **대극장**
 [단체관람]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607-3110



부산지역 초등학생들의 문화현장 교육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열씨구 樂’은 전통국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미있는 국악무대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가 사회, 해설자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국악동요/산도깨비, 소금장수
 민요연곡/도라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원일/신밧놀이
 동요 메들리, BTS 메들리, 애니메이션 메들리
 모듬북(난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5회 정기주회 이탈리아 음악휴가

일 시 | 7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마련한 특별한 음악선물 ‘이탈리아 음악휴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티롤주립극장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홍석원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첫 만남을 갖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밝은 에너지로 가득찬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교향곡’과 고대 로마의 영웅 코리올라누스 장군을 모티브로 한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 이탈리아 작곡가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로 이탈리아로 음악휴가를 떠난다. 지휘자 홍석원은 지난해 환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에 취임하면서 최근 한국에서도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20 Summer Fantasy
Romantic Concert_김동률 편

일 시 | 7월 23일 목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6000



부산시립합창단이 매년 여름 선사하는 시원한 음악선율 '2020 Summer Fantasy'.

'Summer Fantasy'는 주옥같은 국내가요를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공연으로,

매년 하나의 테마가 있는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합창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따뜻한 감성의 싱어송라이터 김동률의 수많은 히트곡을 부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와 밴드의 웅장한 사운드 구성에 맞게 편곡하여 원곡과는 다른 느낌의 합창음악으로 관객과 만난다.

제9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오페라의 밤

일 시 |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www.johnlee.or.kr 응모 후 추첨)
 문 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637-0125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故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나눔문화의 활성화와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제9회 부산사람이태석 기념음악회.

따뜻한 가슴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았던故 이태석 신부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는 이태석 기념음악회를 비롯해 교육 기부 프로그램인 청소년 아카데미와 이태석 봉사상 시상, 이태석 국제의료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소프라노 정혜옥, 설은경, 테너 김성진, 바리톤 김종표, 첼리스트 이일세, 그리고 용마코러스가 출연,故 이태석

신부가 창작한 '슈크란 바바'를 비롯해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 가요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로시니/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
 로시니/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 목소리'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이중창(저녁 바람은 부드럽게)'

비제/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중 '귀에 익은 그대 음성'

레하르/오페레타 '주디타' 중 '그 입맞춤은 뜨겁고'

프랑크/생명의 양식
 브루흐/신의 날 작품 47

채동선/그리워
 김동환/그리운 마음
 김효근/첫사랑
 이주호/사랑으로

- 이태석/슈크란 바바 등
- 예술감독/오충근(지휘)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협연/정혜옥(소프라노), 설은경(소프라노), 김성진(테너), 김종표(바리톤), 이일세(첼로)
- 특별출연/용마코러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일 시 | 7월 25일-26일 토-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48개월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한 여름 밤, 연인들이 펼치는 유쾌한 사랑의 소동, 서울발레시어터의 창작발레 '한여름 밤의 꿈'. 서울발레시어터의 가족발레 시리즈의 대표 레퍼토리인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숲 속 요정

의 실수로 엇갈려버린 연인들이 다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발레로 그려낸 작품이다. 지난 2015년 대전 예술의전당과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원작의 유쾌함은 살리면서 안무가인 제임스 전의 재치 있는 안무와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더해 극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작품으로 재탄생됐다.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
Odyssea FE2020b
녹(綠)Knock

일 시 | 7월 30일-31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21~2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가 선정을 위한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 두 번째 무대.

이번 '거장들의 다채로운 무대 프로젝트'는 공개채용 방식이 아닌 전문가 추천제로, 특히 이번 무대는 지난 3월, 관객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장 휴관으로 이번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리움무용단, 배정혜춤아카데미 대표로 있는 안무가 김수현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 다채로운 빛깔의 춤옷을 입힌 'Odyssea FE2020b_녹(綠)Knock'을 선보인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바이올린 로망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일 시 | 7월 31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인 (재)부산문화회관 마티네 콘서트.

특히 올해부터는 SBS 판 아나운서이자 클래식 애호가인 박찬민 아나운서의 친근한 진행으로 음악

의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7월에는 스위스 최고 오케스트라인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한국인 최초 부악장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이 피아니스트 이택기와 함께 '바이올린 로망스'라는 테마로 감미로운 선율이 돋보이는 곡들로 무대를 꾸민다.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개장
다시 뛰는 부산, 시민희망음악회
**베토벤: 운명 속의 거인,
희망을 노래하다**

일 시 | 7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운명과의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한 기쁨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베토벤 교향곡 '제5번'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며, 이기선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 유지수가 베토벤의 '코랄판타지'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태평소와 풍물놀이'로 신명을 더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료계 종사자, 자원봉사자, 보건의료·경찰·교육 공무원 및 예술가 등을 초청, 감사와 화합의 무대로 마련된다.

2020 제38회 부산연극제

일 시 | 7월 18일(토)-19일(일), 25일(토)-26일(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부산연극제 2020년 무대. 매년 3월에 열렸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연기되어 7월에 선보이는 이번 연극제는 올해 '부산연극제의 개혁'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 속에 그 개혁의 첫 걸음으로 경연작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강화하면서 총 다섯 개의 작품 중 두 작품만이 경연작으로 선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경연작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안정감 있는 희곡으로 평가받은 극단 이야기 '적산가옥'과 무대에 대한 도전욕구를 불러일으킨 극단 B급 로타리 '저널리즘' 등 두 작품이다. 한편, 2020 부산연극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7월 18일 오후 3:30, 시상 및 폐막식은 7월 26일 마지막 공연 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극단 B급 로타리 '저널리즘'(작, 연출/김경민)
7월 18일(토)-19일(일) 오후 4:00

이 시대의 진정한 언론과 기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무대 위에 던지는 작품. 대안 언론이라 불리는 '여의도 오늘'은 거대언론사 해직기자들이 모인 소규모 언론기관으로, 메인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초대형 비리의혹사건을 자신들의 힘으로 취재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권력층의 핵심 인사들과 거대언론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포착되고,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그들과 맞서려는데...

극단 이야기 '적산가옥'(작/백하룡, 연출/박현형)
25일(토)-26일(일) 오후 4:00

목포의 대지주이며 일제에 의해 작위를 받은 한 집안의 1943년 여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어두운 과거사를 그린 작품. 1943년 여름 언덕 위 거대한 저택의 하인들은 아침부터 부산스럽다. 집 주인인 최인석이 조선 각지와 만주 지방을 돌아다니며 징병 지원을 독려하고 돌아오는 날이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 윤정혜의 불륜을 목도한 딸 최승림은 어머니에게 불륜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학전 어린이 무대 우리는 친구다

일 시 |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00, 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36개월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아이들의 일상을 섬세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내어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호평 받은 극단 학전의 어린이 뮤지컬 '우리는 친구다'. 독립그립스 극단이 1978년 제작한 어린이뮤지컬 '막스와 밀리(Max und Milli)'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변안한 '우리는 친구다'는 2004년 초연된 후 매년 공연되고 있는 스테디셀러극으로, 2008년에는 '어머니공연평가단'이 뽑은 '올해의 좋은 공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는 친구다'는 민호, 슬기 남매와 새로 사귀 문치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일상과 고민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아이들이 한 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술동행 예나드리
음악꽃이 피었습니다

일 시 | 7월 31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1:30 | 대극장[단체관람]
문 의 | 예나드리 010-4002-9979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악기소개와 더불어 들려주는 정악 '수제천'과 영화음악 OST, 전국의 아리랑을 해설과 감상할 수 있는 아리랑로드, 그리고 창작국악관현악곡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음악여행을 떠난다.

- 출연/정주아(피리), 이주현(태평소), 손한별(대금), 조은경(소금), 최유리(해금), 권다정(아쟁), 윤경선(가야금), 강메라(신디사이저), 이지현, 김인균(타악)
- 해설, 소리/조아라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일 시 | 7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8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15세 이상 입장,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두 형제의 삶을 통해 삶의 현주소를 질문하는 웰메이드 연극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무대에 오르는 이번 작품은 극단 골목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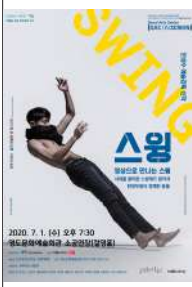
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출과 교수로 있는 박근형이 극작과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인간, 운명, 삶과 인생, 죽음 등을 묵직한 성찰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 작, 연출 / 박근형
- 출연/방은희, 강지은, 성노진, 서동갑, 오순태, 이호열, 김은우, 한충은

음악

영도문화예술회관
어울림 상설 Series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15일은 오후 7: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1일(수) #5 SAC on screen
'영상으로 만나는 스윙'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
• 입장료/무료
8일(수) #6 onStage
'또다른 시작'
테너 박소민, 조준제, 간경미, 권세현, 바리톤 정승화, 김기환과 팡페라 그룹 인치엘로 리더인 테리가 출연, 한국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 입장료/전석 1만원
15일(수) #7 영도명화극장 '보헤미안 랍소디'
• 입장료/무료(선착순 전화예매)
22일(수) #8 onStage '무지개 뱀발리'
무대예술음악 작곡가인 전현미를 리더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현미밴드(뮤직인피플)의 무대.
• 입장료/전석 1만원

제6회 을숙도 오페라 축제

일 시 | 7월 4일(토), 11일(토) 오후 2:00, 5:00,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5:00, 25일(토) 오후 2:00, 6: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을숙도문화회관이 매년 7월,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오페라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을숙도 오페라 축제 2020년 무대.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오페라 축제에서는 비제 오페라 '카르멘', 로시니 오페라 '신데렐라',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등 정통 오페라 작품 4작품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오페라 발레 갈라콘서트 '오페렐라 발렐리아'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한 칸 건너뛰어 앉기'로 진행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지친 의료진, 방역 관계자, 국민들을 위해 인터파크에서 예매시 코로나 극복 희망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강희자베세도 오페라단 '카르멘'
4일(토) 오후 5:00 대공연장
가난한 집시여인 카르멘과 군인 돈 호세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그린 비제의 '카르멘'
• 관람료/1층 4만원, 2층 3만원

(사)경상오페라단 '신데렐라'
11일(토) 오후 2:00 소공연장
페로의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했으나 현실주의자였던 로시니가 동화의 신비로운 설정들을 걷어내고 새롭게 창작한 오페라 '신데렐라'.
• 관람료/전석 1만원

(사)경상오페라단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11일(토) 오후 5:00 대공연장
젊은 작곡가인 마스카니를 세상에 알린 오페라로, 베리스모 오페라의 시초로 더욱 유명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관람료/1층 3만원, 2층 2만원

(사)이지무소페라단 '피가로의 결혼'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5:00 대공연장
풍자의 미학과 유쾌한 희극적 요소가 결합된 18세기의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로 꼽히는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 관람료/1층 3만원, 2층 2만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오페라 갈라콘서트 '오페렐라 발렐리아'
25일(토) 오후 2:00, 6:00 대공연장
• 관람료/1층 3만원, 2층 2만원

제16회 짜장콘서트
전통과 현대의 음악적 조우

일 시 | 7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과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의 공동 주최로 매월 열리는 '짜장콘서트' 7월 무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음악의 저변확대, 청년음악가의 발굴, 박물관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콘서트가 끝난 후 관객들이 연주자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는 뒷모습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마련한다.
바리톤 시영민, 소프라노 정수정, 그리고 음악풍경 전석 앙상블 '프로뮤지카'(바이올린 김한솔, 첼로 박우수, 피아노 박정현)가 출연, 정통 클래식과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진행/이진이

미래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창작곡의 밤

일 시 | 7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무료(선착순 전화예매)
문의 |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010-5468-4658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인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정기연주회로, 영도를 주제로 작곡된 부산지역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김수진/강강이 마을의 전경 권태우/봉래산 정상에서
조혜선/흰 여울 문화마을의 아침
박규동/태종대 바닷가에서
최삼화/절영 산책로
김성광/봉래산 삼신 할매의 전설 등
• 지휘/박성은
• 소프라노/박성희 • 테너/조윤환

창원 스타인웨이홀 첫 번째 기획연주회
피아니스트 한동일 초청
토크콘서트

일 시 | 7월 12일 일요일 오후 5:00
창원 스타인웨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70명 한정, 전화예매시 1만5천원)
문의 | 부산문화 1600-1803



창원 스타인웨이홀 첫 번째 기획연주회로 마련되는 피아니스트 한동일 초청 토크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1세대 피아니스트로, 오랜 기간 미국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영구 귀국한 한동일 선생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를 그의 연주와 함께 들려준다. 특히 주남저수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창원 스타인웨이홀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음악회로, 관람 인원을 70명으로 한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받는다.

한국 가곡의 밤 힘내라 대한민국!

일 시 | 7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 솔오페라단 1544-9373



금정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부산 최고의 성악가들이 마련하는 한국 가곡의 밤 '힘내라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가곡인 '동무생각'(이은상 시, 박태준 곡)이 발표된 지 100년을 맞이하여 주옥같은

한국 가곡의 향연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특히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가곡으로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다.

- 예술총감독/이소영 • 피아노/박미은, 김현정
- 소프라노/허미경, 김유섬, 박현정, 신정순, 장은영, 김나영, 김유진, 박연경, 구민영
- 메조소프라노/양송미, 이지영, 박소연, 손혜은
- 테너/임성규, 김지호, 조윤환, 홍지형
- 바리톤/조현수, 박대용, 최판수, 이승우, 이태영
- 베이스/권영기, 양재원

절영Arirang-태종대 감지해변의 추억

일 시 | 7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전통국악의 아름다움과 창작국악의 멋스러움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4년 창단 후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부산국악오케스트라의 무대.

현재 지휘자 홍희철을 중심으로 3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국악오케스트라는 그동안 1,000회가 넘는 무대를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무대로 관객과 만나왔다.

- 지휘/홍희철
- 가야금/김아현, 박소현
- 트럼펫/최수용
- 바이올린/정다희

연극

연극 미스터 얼간이

일 시 | 4월 15일(수)-8월 30일(일) 화-금 오후 5:00 7:00, 토요일 오후 2:30, 5:00, 7:30(일, 공휴일 오후 2:30, 5: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잃을 게 없는 두 남자의 검은 비리 커넥션의 한판 승부 연극 '미스터 얼간이'.

원하던 교사 임용 한달을 앞두고 있는 재혁, 공중파 출신 무명 개그맨 강민, 동시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두 남자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증권가의 찌라시를 접하지만 기업이 이윤을 위해 출시일을 늦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둘은 제약회사 금고에 숨겨진 신약을 탈기를 결심하는데...

- 출연/이재영, 박한일, 오승현, 박강록, 허진, 김수령, 손수경

연극 작업의 정석

일 시 | 4월 30일(목)-7월 1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인들이 선정한 가장 재미있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 '작업의 정석'.

개봉 당시 230만 관객을 동원한 송일국, 손예진 주연의 동명의 영화를 무대에 옮긴 '작업의 정석'은 개봉 당시 칭찬 남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연

애 이야기를 '선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독특한 소재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특히 연극 '작업의 정석'은 2012년 대학로에서 초연된 후 영화에서 보여진 작업의 기술뿐 아니라 트렌드에 맞춰 추가된 상황들과 더불어 무대라는 제한적인 장소에서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들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일 시 |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00, 6:00, 12일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문의 | ㈜아이스타미디아 1644-4146



친정엄마와 딸의 가슴 뭉클한 사랑을 다루며 2009년 초연 이후 오랜 세월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은 2009년 서울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초연 이후 서울, 수원, 대구, 부산, 대전, 청주, 창원, 원주, 고양 등 다양한 도시에서 100회 이상 공연했으며, LA, 뉴욕 등에서 해외공연을 성황리 마친 바 있다.

이번 무대에 강부자는 시골집에 혼자 살며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친정엄마를, 윤유선은 사회에서는 부러울 것 없는 커리어우먼으로 살아가지만 아픔을 감추고 있는 딸의 역할을 맡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일 시 | 7월 29일(수)-8월 9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후 2:00, 7:00(평일 및 일요일 오후 7:00 공연은 단체관람으로 예매 마감)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의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780-6060



부산지역 예술가가 제작한 '부산 뮤지컬'로 화제가 된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2019년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이며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되묻는다.

- 예술감독/오세민 • 드라마트루/전주협
- 작, 연출/차승호 • 작곡/이영재
- 출연/박찬영, 김민하, 박솔기, 김도한, 이혁우, 박준수, 문석중, 남동훈, 조한범, 김민정, 이경민, 김경민

2020 제3회 작강 연극제

일시 | 7월 30일(목)-8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나다소극장,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전화-인터넷 예매시 1만4천원, 부산연극제-작강연극제 통합관람권 5만원)
문의 | (사)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작지만 강하게’를 컨셉으로 소극장 무대에서 2~3인의 배우들이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는 특별한 연극페스티벌 ‘2020 제3회 작강 연극제’.

극단 사계 ‘잘자요 엄마’
 7월 30일(목)-31일(금) 오후 8:00, 8월 1일(토)

오후 5:00 nada소극장

자살을 하려는 딸과 이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엄마. 아이러니한 두 사람의 대화와 행위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부조리한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작/마샤 노먼 • 연출/김만중

극단 따뜻한사람 ‘하녀들’

8월 2일(일) 오후 5:00, 3일(월)-4일(화) 오후 8:00 하늘바람소극장

마담으로의 지위 상승을 꾀하는 두 하녀 쓸량주와 콜레르. 마담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자신의 죽음을 통해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계급주의를 돌아볼 수 있다.

• 작/장 주네 • 연출/허석민

극단 에저또 ‘페르소나’

8월 4일(화)-6일(목) 오후 8:00 nada소극장

무의식속 내가 원하는 삶이 드러나 나를 지배한다. 숨겨두었던 나의 자아가 타인에 의해 발견되기 시작하고 페르소나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해나간다.

• 작/김지연 • 연출/최재민

극단 드렁큰씨어터 ‘최저인간’

8월 7일(금) 오후 8:00, 8일(토)-9일(일) 오후 5:00 하늘바람소극장

전 세계를 잠식한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 대부분이 괴물이 되었다. 전 세계가 초도화된 순간에도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신진 연출가 윤준기의 작품.

• 작, 연출/윤준기

극단 아이컨텍 ‘롬메이트’

8월 9일(일) 오후 5:00, 10일(월)-11일(화) 오후 8:00 nada소극장

연극배우 지망생 준혁, 경찰공무원 고시 준비생 인 현진과 정환은 서울 원룸에서 함께 살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누군가에게 평범하지 않을, 그러나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티격태격 속에서도 응원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 작품.

• 작/백규진 • 출/박용희

극단 자유바다 ‘나의 정원’

8월 13일(목)-14일(금) 오후 8:00, 15일(토) 오후 5:00 하늘바람소극장

80년 광주에서 군의관으로 있었던 한 남자, 사랑하는 이를 군대에서 죽음으로 떠나보낸 한 여자. 이들은 한 가정을 이루고 ‘나의 정원’이라는 가정을 평화롭고 완벽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각자의 트라우마로 인해 서서히 파괴되어 간다. 오랜 시간 부산에서 활동해온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정경환의 심리극.

• 작, 연출/정경환

공연예술 전위 ‘고모령에 달 지고’

8월 14일(금) 오후 8:00, 15일(토)-16일(일) 오후 5:00 nada소극장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고모령’이라는 선술집을 배경으로 그 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이해하며 화합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작품.

• 작/이상용 • 연출/전승환

행사

제34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일시 | 6월 29일(월)-8월 1일(토)
부산시민회관, 부산예술회관
문의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31-1377, www.artpusan.or.kr



부산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진 창의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청소년들의 종합예술축제.

부산청소년예술제는 매년 5월에 개최됐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늦어지면서 행사 일정을

7월로 조정하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과 관객에 제한을 두고 진행된다.

• 학생그림공모전

6월 29일(월)-7월 4일(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 청소년건축상상마당

7월 5일(일) 오전 8:3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7월 11일(토) 오전 9: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부산청소년연극제

7월 15일(수), 17일(금), 23일(목), 30일(목), 31일(금)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청소년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7월 18일(토) 오후 3: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

7월 18일(토)-19일(일)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 부산청소년음악제

7월 24일(금) 오후 7: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청소년시낭송대회

7월 25일(토) 오후 2: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학생사진공모전

7월 28일(화)-31일(금)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8월 1일(토) 오후 1:00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2020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일시 |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0: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정일영

입장료 | 무료(사전 전화신청 필수, 당일현장 접수 및 참여 불가)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김옥균의 힐링클래식명곡여행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연제구청 대회의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 수강료 3개월 15만원(연제구청 강습은 무료)

문의 | 연제구청 평생학습과 665-4506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부산본점 810-2351~2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공연실황 영상감상회.

프로그램

리하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 마스네 ‘타이스 명상곡’
 파헬렐 ‘캐논과 지그 D장조’, 바흐 ‘토카타와 푸가 D단조’

드뷔시 ‘바다, 월광’, 레스피기 ‘로마의 분수’
 브람스 ‘교향곡 제2번’, 멘델스존 ‘한여름 밤의 꿈’
 푸제 ‘시인과 농부 서곡’,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등

7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목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이상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



매주 월요일에는 '말러 교향곡 시리즈' 콘서트 상황을, 목요일에는 베르디 오페라 26개 전 작품에 도전하는 '베르디 오페라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2일(목) 제1편 오베르토 백작, 제2편 하룻밤의 임금님
9일(목) 제3편 나부코
16일(목) 제4편 롬바르디아 인
23일(목) 제5편 에르나니, 제6편 포스카리가의 두사람
30일(목) 제7편 잔 다르크

7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목요일 오전 10:00 **시네바움 교대**
입장료 | 1회 1만5천원(점심, 다과 포함, 운산의 논어아카데미 무료)
문 의 | 시네바움 교대 010-2774-3455

...

2일(목) 우주호의 동아시아학·한반도와 분단위기
· 강사/우주호(동아시아학연구소 소장, 행정학박사)
7일(화), 14일(화), 21일(화), 28일(화) 운산의 논어 아카데미
· 강사/운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9일(목) 내가 만난 라틴 아메리카
· 강사/차경미(부산외대 라틴아메리카 인문학 센터장, 국제관계학 박사)
16일(목) 창희의 수작클럽 길 인문학, 생각을 걷다
· 강사/박창희(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스토리랩 수작 대표)
23일(목) 정해성의 문화공간
현대 문화속의 두가지 현실 '영상 미술 음악'
· 강사/정해성(문학박사. 문화평론가. 문화공간 Raum-Y 대표)
30일(목) 팝 뮤직과 함께하는 화학이야기 분자야 놀자
· 강사/박찬영(부경대 명예교수, 공학박사)

온누리와 함께하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온누리&시네바움
입장료 | 1회 수강료 1만5천원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710-0775

...

6일(월) 포스트 코로나시대 공연예술이 가야할 길
· 강사/박나훈(영산대 공연예술학과 교수)
7일(화) 왜 재난의 경제학인가? 코로나 이후의 삶
· 강사/김해창 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교수
13일(월) 안수현의 미학산책_바쇼의 하이쿠
· 강사/안수현(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14일(화) 신종바이러스의 습격_코로나19치료제 현황과 면역백신 '영화 컨테이션'
· 강사/정승규(약사, 의학연구가)
20일(월) 철학, 미술과 만나다. 세잔과 폰티가 여는 시각세계
· 강사/심규연(경성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21일(화) 철학의 명장면_원서로 만나는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
·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 객원교수, 철학박사)
27일(월) 재즈를 탐하다_비밥, 극한의 예술 '영화 버드'
· 강사/이기영(동대 음악과 교수, 작곡가)
28일(화) 패션 영화를 노래하다_마이클 잭슨과 시드 비셔스 '영화 디스이즈 잇, 시드와 낸시'
· 강사/진경옥(동명대 명예교수, 패션디자이너)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좋은 만남 화요음악회 20년 이야기 2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 문화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정두환 011-574-0423

...



2020 제21회 부산문화대상을 수상한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감상회. 지난 2003년 3월 시작된 후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지난달에 이어 '화요음악회 20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한다.

7일(744회) 화음에서 이야기 하였던 우리시대의 음악 <합창 이야기>
14일(745회) 화음에서 이야기 하였던 우리시대의 음악 <가곡 이야기>
21일(746회) 화음에서 이야기 하였던 우리시대의 음악 <협주곡 이야기>
28일(747회) 이 달의 책임기 '동무와 연인'(김영민 저, 한겨레 출판, 2008년)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강좌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시즌 4

일 시 | 7월 14일(화), 28일(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수강료 2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음악평론가 객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7월 14일에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한 조반니 조르노비치, 독일 만하임 악파의 카를 슈타미츠, 린드파인트너, 엠마누엘 바흐, 마

티아스 몬, 바겐자일, 디터스도르프 등 고전시대 전기에 활약한 협주곡 작곡가들에 이어 28일에는 제바스티안 바흐의 막내이자 런던의 바흐'로 불리며 최초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여 모차르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크리스티안 바흐와 협주곡의 역사에서도 가장 눈부신 공헌을 이룩한 모차르트에 대해 알아본다.

전시

김영곤 초대전 'Two Young : 20

일 시 | 7월 6일(월)-7월 24(금)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슬기로운 탐구생활-사람, 사회, 자연 그리고 의도된 자연

일 시 | 7월 9일(목)-7월 28일(화)
을숙도 갤러리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을숙도 갤러리 220-5822

노트르담 드 파리 & 인류의 탁월한 세계유산展

일 시 | 7월 14일(화)-8월 11일(화)
금정문화회관 2층 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57

BOOK



산은 살아있어

박경효 지음 / 호밀밭
52p / 1만 5천원

산을 깎아내고 공사를 하는 곳을 가끔씩 본다. 볼 때마다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산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큰 자연이다. 늘 그곳에 있는 산이기에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이다. 부산의 박경효 화가가 산을 담은 그림책을 냈다. 박경효는 본업이 화가이지만 세상에 건네고 싶은 이야기들을 때로는 그림동화의 형식으로 전한다. 비룡소 황금도깨비상을 수상한 첫 번째 책 <입이 똥꼬에게>가 유명세를 타서, 그를 화가가 아니라 그림책작가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 <산은 살아있어>는 환경과 생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 책은 20여 년 전 천성산 터널공사 당시 생태계 파괴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까지 했던 지울 스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창작한 이야기에 23점의 그림작품을 더했다. 거친 색감과 터치의 그림은 작가의 외침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박경효는 "사실 이 책은 <입이 똥꼬에게>가 출간되기 전에 구상하고 일개를 잡았던 작품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동안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아지기를 희망했지만 그 문제의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말한다. 산은 살아있음을 힘주어 말하는 책이다.

스타인웨이 만들기

제임스 배런 지음, 이석호 옮김 / 프란츠
436p / 2만 2천원

'스타인웨이'는 기라성 같은 피아니스트들의 동반자, 명품 피아노로 불린다. 뉴욕 타임스의 기자 제임스 배런이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제작 과정을 11개월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했다. 1797년에 태어나 가구 제작자를 꿈꾸던 독일 청년 하인리히 앙겔하르트 슈타인베르크는 부엌에서 첫 피아노를 만들었다. 훗날 명품피아노가 된 스타인웨이의 탄생지는 부엌이다. 슈타인베르크는 1850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영어식 이름인 '스타인웨이'로 바꾼 가족들은 본격적인 피아노 제작 사업을 시작했다. 뉴욕에 자리 잡은 지 10년 만에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공장'을 지을 정도로 성장했다. C.F. 테어도어 스타인웨이는 1884년 고국으로 돌아가 함부르크에 스타인웨이 앤드 선스를 차렸다.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스타인웨이는 피아노 산업의 호황과 함께 사세를 확장하고 독보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후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다가 1972년 CBS에 매각됐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이어온 제작 과정과 전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스물 네 단계의 공정 과정을 거쳐 그랜드피아노가 되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스타인웨이는 노동자들의 대물림된 기억으로 수 세대를 건너왔다.

뉴턴의 아틀리에

김상욱·유지원 지음 / 민음사
440p / 1만 9천원

과학과 예술은 서로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책. 틈만 나면 미술관을 찾는 물리학자 김상욱, 물리학회까지 참석하며 과학에 열정을 보이는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퍼 유지원, 두 사람이 쓴 책이다. 뉴턴은 과학자의 이름이고, 아틀리에에는 예술가의 창작 공간이다. 다른 분야가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넘나들고 섞인다. 물리학자는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고,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를 좋아하며 물리학회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디자이너의 이야기는 신선하게 다가온다. '점'을 소재로 두 저자가 쓴 글은 흥미롭다. "세상이 점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은 조르주 쇠라다."라고 한 사람은 김상욱, "칼 세이건은 자신의 책 <창백한 푸른 점>에서 지구를 '점'이라 불렀다."라고 한 사람은 유지원이다. 과학자는 예술에서, 예술가는 과학에서 '점'을 보았다. 책속 폴록이 바닥에 놓인 캔버스 위에 물감을 떨어뜨린 그림을 중력 원칙에 따라 완성된 '자연스러운' 작품으로, 녹아내리는 시계 이미지로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은 양자역학으로 설명한다. 과학과 예술은 본디 하나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명품 문화놀이터로 돌아오다

첨단 무대시설로 새롭게 탈바꿈한
부산시민회관

임종호 부산시민회관 무대운영팀장

1973년 개관한 부산시민회관은 그동안 부산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충전소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관년도인 1973년이 말해주듯이 47살의 나이를 먹은 부산시민회관의 무대시설물들은 최첨단의 시설물이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시설의 전면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당연했다.

국고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은 올해 7월 3일 재개관 기념음악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개보수 공사의 중심에는 관객과 무대를 이용하는 예술가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

먼저, 로비는 철저하게 관객중심으로 개선됐다. 관객들을 맞이하는 프론트 데스크를 로비 중심에 널찍하게 조성하여 매진공연 등 많은 관객 분들이 찾을 경우 오랫동안 줄을 서지 않도록 6개의 창구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더불어 티켓팅 대기 시간 동안에도 관객들의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당일 공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DID디지털 시스템을 설치했다. 고객들의 편의시설인 고객센터 및 물품보관소는 로비의 벽면과 바닥 등 밝은 색의 화사함을 항상 유지하도록 색감디자인을 도입하여 디자인적으로 잘 어울리도록 꾸몄다.

BUSAN

CITIZ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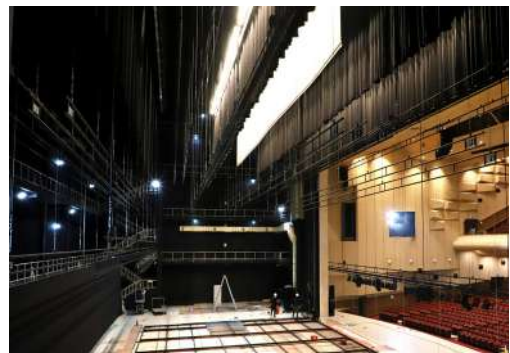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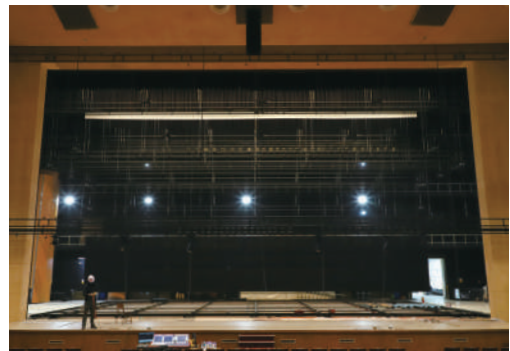
HALL

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무대를 만들고 다음 장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으며, 많은 무대세트들을 매달 수 있어서 대규모 뮤지컬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의 변신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무대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위한 무대 방화막의 설치에 따라 무대 안전성이 높아졌다. 1,606석의 객석과 첨단 무대 기계시스템을 보유한 부산시민회관은 어떠한 공연도 무대 위에서 구현가능함에 따라 부산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졌던 옛날의 영화(?)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대음향에 있어서도 기존 스피커 시스템에 센터 스피커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뮤지컬이나 콘서트 공연 시 중간 객석의 부족했던 소리전달을 보완함으로써 완벽한 소리를 객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관객들에게 공연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영상이나 차기 공연에 대한 홍보영상을 틀어주는 LED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민친화적인 공연장으로의 변신을 꾀했다. 이런 개선책들은 부산시민회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회관이 감사의 보답으로 드리는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다. 그동안 부산시민회관을 즐겨 찾던 시민들에게 관객 우선의 공연장으로 변한 이 곳에서 더 많은 문화향유를 즐기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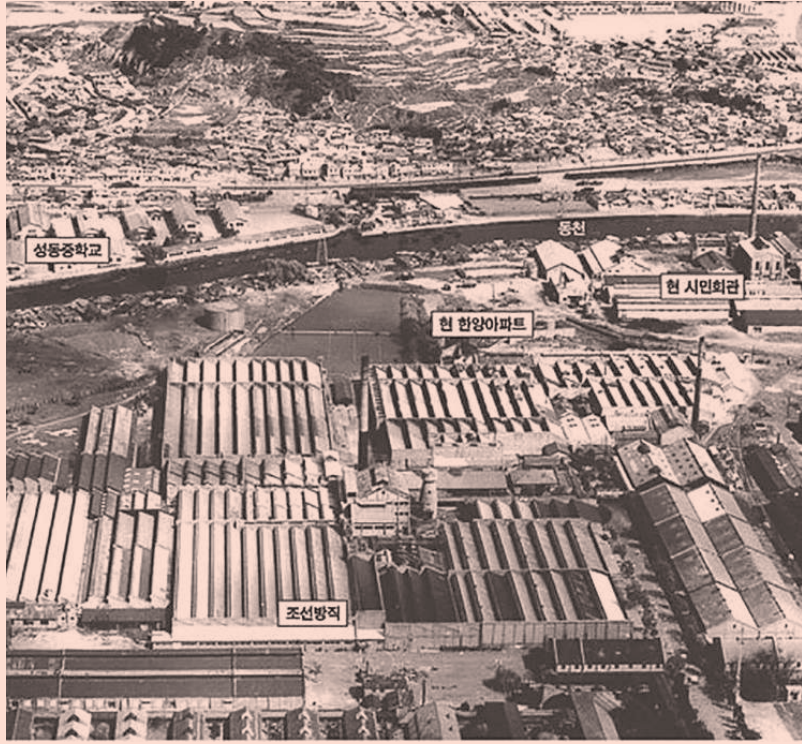
이렇듯 깔끔하면서도 첨단의 시스템으로 변화된 공연장 로비와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된 음향, 영상시스템이 부산시민회관을 찾아주시는 관객들에 대한 회관의 서비스라면, 공연예술가와 무대작업자들을 위한 무대서비스의 변화는 단연 최첨단 무대시스템이다. 그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반영된 최첨단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과 48개의 배튼(batten) 시스템은 무대연출가들이 원하는 어떠한 형태의 장면전환도 가능하



부산시민회관 재개관 기념 그 기억과 흔적 사진展

(재)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재개관을 기념하는 특별전 ‘그 기억과 흔적 사진展’을 7월 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갖는다.

4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해온 부산시민회관은 특히 지난 2017년 10월 1일, (재)부산문화회관과 통합, 운영되면서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시민회관의 48년 역사를 보여주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부산시민회관의 역사와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시민들에게 향수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1960년대초 부산 동구 범일동 모습(©부산시 동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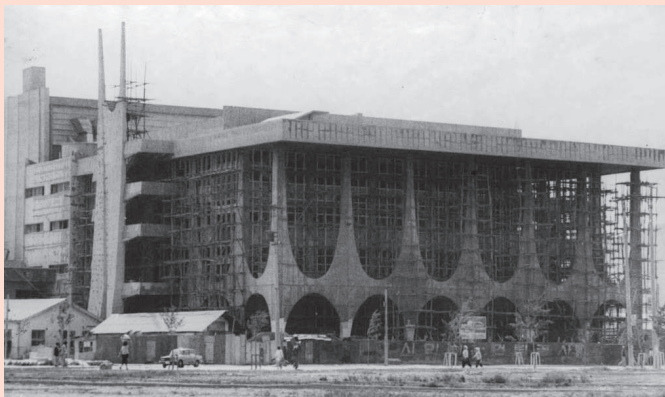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부산시민회관 48년史



1960년대 부산 시민회관 건설 당시 모습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설계 제도하는
김영권 건축사
(©김영권 건축사 따님)



부산시민회관 건립공사 장면(©부산일보)



부산시민회관 개관 기사
(1973년 10월 10일, ©부산일보)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1992년 2월 20일, ©개인)



영화 '영구와 드라큐라' 상영
(1992년 8월 13일, ©부산일보)



제9회 부산미술제(1989년 9월, ©개인)



제17회 부산연극제 개막
(1999년 4월 야외광장, ©개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999년 3월 23일, ©개인)

기업의 품격을 높인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신설



기업의 품격을 높이고 법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혜택과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제공하는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이 7월부터 신설, 운영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은 연회비에 따라 루비 레드(Ruby Red), 에메랄드 그린(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Sapphire Blue)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가입 시 기업로고가 표기된 멤버십 전용 카드 및 법인회원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가 제공된다. 또한 등급에 따라 (재)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 및 전시 입장료, 아카데미 수강료, 주차료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홈페이지 및 공식 SNS 등 (재)부산문화회관만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기업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 www.bscc.or.kr)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정기회원 단체가입



자연 속의 문화와 음악이 함께 있는 명품요양병원 그랜드자연요양병원(원장 이재일)이 올해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은 병원가족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매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하면서 다양한 공연관람을 통해 문화생활을 함께 즐겨오고 있다.

한편,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재)부산문화회관은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공연정보 제공, 아카데미 수강료 및 주차요금 할인,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과 부대 서비스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매년 단체가입이 늘고 있다.

임시휴관에 따른 정기회원 유효기간 연장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지난 2월 10일부터 4개월간 임시휴관 됨에 따라 정기회원의 회원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번 기간연장에 따라 올해 공연장이 재개되었던 6월 가입한 신규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전체 정기회원의 회원기간이 휴관기간만큼 연장된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임시휴관이었던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운영을 재개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제4기 SNS서포터즈 출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재)부산문화회관 제4기 SNS 서포터즈가 지난 5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월 13일부터 20여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4기 SNS 서포터즈는 만19세 이상으로 개인 SNS채널을 운영중인 부산지역 시민 3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에는 지난해 활동한 제3기 우수 서포터즈 3명도 포함되어 있다.

제4기 서포터즈는 올해 말까지 서포터즈간 적극적인 정보 교환과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재)부산문화회관의 공연소식,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뒤늦게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19명의 서포터즈가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으며, 발대식 후 당일 대극장에서 열린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가족음악회'를 함께 관람했다.

부산시립극단, 국·공립 극단 연극 페스티벌 참가



부산시립극단이 7월 5일부터 22일까지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20년 제11회 대한민국 국·공립 극단 연극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전국 국·공립극단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공립극단 연극제로, 매년 경주에서 수준 높은 연극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극의 해'를 맞이하여 국·공립극단협의회 회원단체 15개 팀 중 총 11개 팀이 참여, 서울과 경주에서 펼쳐진다. 서울에서는 국립극단, 수원시립공연단, 광주시립극단, 순천 시립극단, 강원도립극단이, 경주에서는 부산시립극단을 비롯해 경주시립극단, 경기도극단, 인천시립극단, 목포시립극단, 전주 시립극단이 참가한다.



부산시립극단은 7월 18일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연극 '갈매기'를 무대에 올린다. 7월 3일부터 1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67회 정기공연으로도 선보일 '갈매기'는 근대연극의 창시자로 꼽히는 체홉의 첫 장막 희곡으로, 특히 부산시립극단의 '갈매기'는 무대 위에 새롭게 원형무대를 구축함으로써 관객들이 풍경이 아닌 극 속의 현실적인 관찰자로 새로운 시각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어느 청소년의 사연과 신청곡' 신청 안내

- ☑ **공 연 명**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BPO Youth Concert)
- ☑ **일시/장소** 2020년 8월 11일(화) 오후 3:30,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 **신청내용** '클래식은 내친구'에서 소개될 '어느 청소년의 사연과 신청곡'
- ☑ **신청기간** 6월 22일(월)~7월 24일(금) 오후 5:00까지
- ☑ **신청방법**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kmj0078@bscc.or.kr
- ☑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부산시립교향악단 담당 ☎ 607-3111~2)

극장장의 손 편지 ⑰

시민회관이 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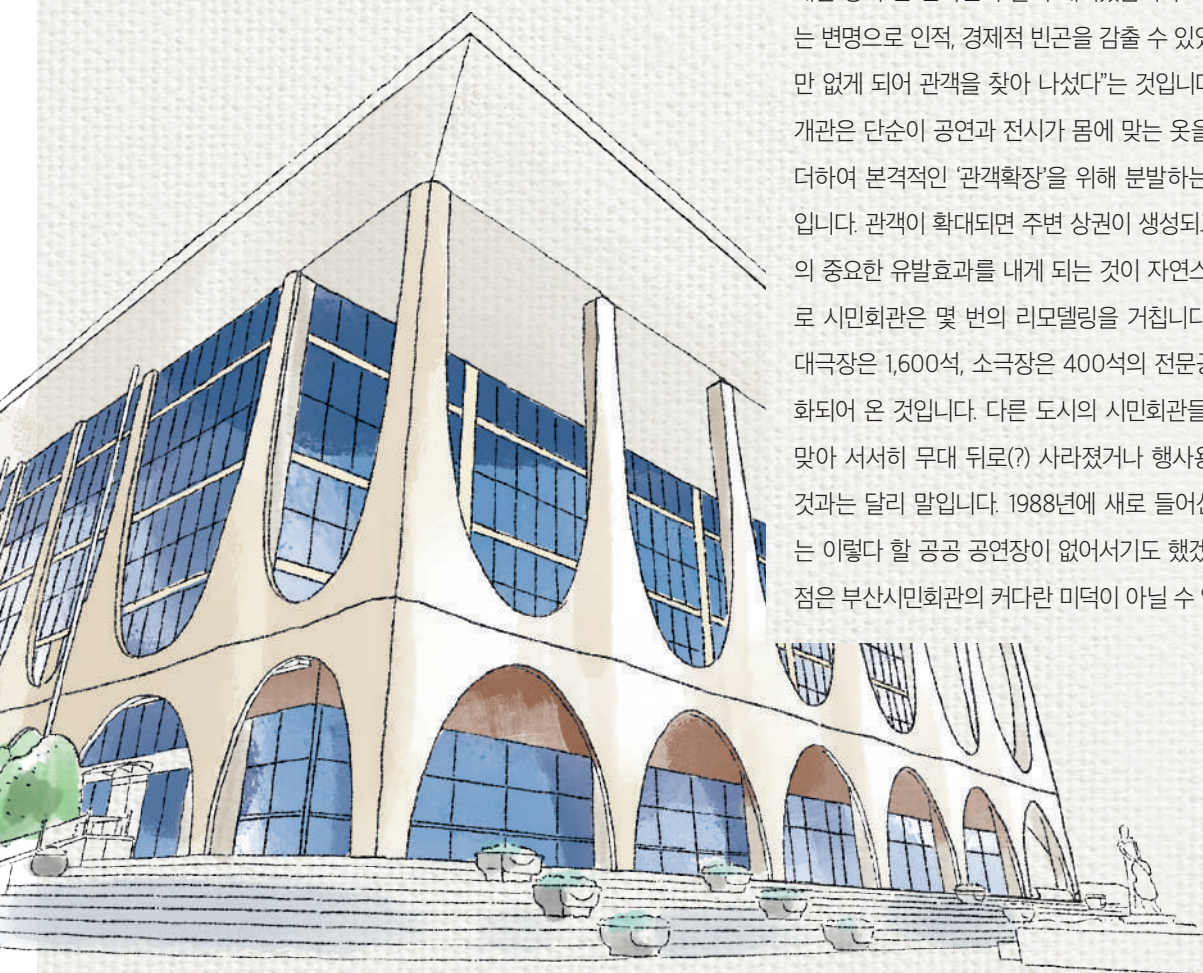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문화의 불모지에서 탄생한 시민회관

1973년 10월 10일, '문화의 불모지'라던 부산에 시민회관이 문을 엽니다. 부산에서 공공극장으로서는 처음인 '사건'이었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주로 어디서 공연을 했을까요? 알아보니 주로 남포동 제일극장 등 영화관이더군요. 식민지시대 서울에서도 광무대, 단성사 등 여러 영화관에서 창극, 무용 등을 공연했듯이 말입니다. 제일극장은 1957년에 들어선 1,400석짜리 극장이었다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962년도에 창설이 되었으니 거기서 연주회를 하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시민회관 개관과 더불어 연주장소를 옮겼지요. 그 해에는 부산시립합창단이, 그 전 해에는 시립무용단도 창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관 당시는 대극장이 2,000석 정도로 지금보다 400석이 많았고 이름도 '대강당'이라 하여 공연뿐만 아니라 국경일 행사, 영화제, 심지어 기능올림픽까지 열었으니 그 용도가 '다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민회관들이 그랬듯이요. 1990년대 초반에는 3김씨가 연설도 한 기록이 있으니 정치적 이벤트로까지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개관 당시 한 연극인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그동안은 무대가 없다는 변명으로 인적, 경제적 빈곤을 감출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럴 수만 없게 되어 관객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 개관은 단순히 공연과 전시가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에 더하여 본격적인 '관객확장'을 위해 분발하는 계기도 되었던 모양입니다. 관객이 확대되면 주변 상권이 생성되고 공연장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유발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런 이치입니다. 그 뒤로 시민회관은 몇 번의 리모델링을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대극장은 1,600석, 소극장은 400석의 전문공연장으로 서서히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다른 도시의 시민회관들이 '문예회관' 시대를 맞아 서서히 무대 뒤로(?) 사라졌거나 행사용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1988년에 새로 들어선 부산문화회관 외에는 이렇다 할 공공 공연장이 없어서기도 했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 점은 부산시민회관의 커다란 미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예회관, 전용공연장 시대로

사실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맨 처음 등장한 것은 1962년의 서울시민회관입니다.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호를 따서 '운남회관'으로 했다가 4·19로 퇴진을 하면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역시 다목적으로 운영되다가 1972년 MBC 10대가수가요제를 진행하던 중 그만 대형화재가 발생합니다. 무려 57명이 죽고 3층에 있던 관장까지도 숨졌습니다. 방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장치가 부실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들어선 것이 1978년도에 문을 연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이로서 다목적의 시민회관 시대가 저물고 공연과 전시 중심의 문예회관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예회관은 대중소 등 공연장 수가 늘고 공연시설이 더 전문적이고 음향 조건도 좋아졌으며 객석도 관람편의를 위해 평평한 강당에서 경사진 객석으로 바뀌지만 한 무대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 여러 장르의 공연을 해야 하는 한계는 여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장르 목적' 공연장이라 부릅니다. 서양의 극장들이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연극장 등으로 전용화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말입니다. 한 도시에 전용극장을 여러 개 지으려면 재정 부담이 만만찮으니 그렇기도 했습니다. 부산문화회관도 그런 유형입니다만 조금 달랐던 것은 소극장(지금의 사랑채극장) 만큼은 돌출무대의 연극전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의 전용극장들이 본격 등장한 것이 1988년~1993년 사이에 개관한 예술의전당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연극장 등 전용화 된 극장들이 여럿 들어서 있습니다. 이후 각 도시에는 한 군데 모여 있거나 따로 떨어진 오페라하우스(대구, 고양), 콘서트홀(고양, 서울롯데, 대구, 인천) 등이 들어섰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지요. 부산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도 그런 전용극장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낮은 허물을 벗고 재탄생한 시민회관

여하튼 그런 역사성을 가진 우리 시민회관이 2020년 7월 3일, 1년 만에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다시 시민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엇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안전성 확보부터 말씀 드리지요. 웬만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시설을 보완했고요. 대개 무대에서 공연 중 발생하는 화재확산을 막기 위해 객석과 무대를 차단하는 방화막도 적당히 조절된 무대길이에 맞춰 새것으로 달았습니다.

공연시설로는 수동으로 움직였던 무대 상부를 자동으로 모두 바꾸어 무대전환이 훨씬 빠르고 다양하도록 했습니다. 무대 장치를 매다는 바튼 수도 3배로 늘려서 대부분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대 바닥도 고급 목재로 바꾸고 음향반사판도 교체하는 등 더 좋은 음향조건도 갖추었고요. 그런가 하면 시민 여러분을 맨 처음 맞이하는 로비도 보다 밝고 고급스럽게 단장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민회관은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다양한 공연장 환경이 완성될 시대에 대비하여 대중예술 장르 중심의 시민 친화적 공연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무용, 전통음악, 연극 등 우리예술 중심의 부산문화회관, 오페라와 발레 등을 수용할 오페라하우스, 클래식 음악 중심의 국제아트센터와 함께 상당히 차별적 콘텐츠를 가지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처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이 봄마저 속절없이 가버렸지만, 다시 오실 당신이 우리들의 봄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 20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연극/뮤지컬

착한 여우들의 유쾌한 반란!

<여자만세 2>

시민 | 소극장 5.28.(목) 3:00pm,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 패키지 제외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햄릿>

문화 | 중극장 5.30.(토) 3:00pm
All Seats 20,000원



2020년 창작뮤지컬 최고의 화제작

뮤지컬 <팬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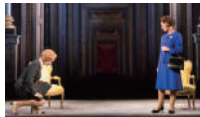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6.12.(금)~6.14.(일)
금 7:30pm 토 3:00pm, 7:00pm 일 3:00pm
R 88,000원 S 66,000원
* 패키지 제외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디 오디언스>

문화 | 중극장 6.27.(토) 3:00pm
All Seats 20,000원



‘그래, 삶이란 이런 거지’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시민 | 소극장 7.31.(금)~8.1.(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연극계 황금콤비 김광보 연출 & 고연옥 작가 신작

<결혼> 부산문화회관·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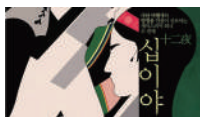
문화 | 중극장 9.18.(금)~9.20.(일) 금 7:30pm
토일 3:00pm /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셰익스피어의 열두밤 이야기

<십이야(十二夜)>

시민 | 소극장 9.26.(토)~9.27.(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발레 / 무용

원작자 ‘셰익스피어’가 나타났다!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문화 | 중극장 7.25.(토)~7.26.(일)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거대한 스윙재즈 클럽의 열기 속으로!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문화 | 대극장 8.28.(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온미 컴퍼니 <A-드래곤>

문화 | 중극장 12.4.(금)~12.5.(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클래식

프렌치 베토베니언의 베토벤 소나타

프레데리크 기 리사이틀 [취소]

문화 | 챔버홀 6.16.(화) 7:30pm
All Seats 30,000원



압도적인 재능과 타고난 음악성!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취소]

시민 | 대극장 7.15.(수) 7:30pm
R 110,000원 S 80,000원 A 50,000원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의 귀환

루돌프 부흐빈더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문화 | 대극장 9.25.(금) 7:30pm
V 120,000원 R 90,000원 S 60,000원 A 30,000원



오스모 벤스케 지휘 x 이지운 협연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내셔널 투어

문화 | 대극장 10.30.(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Adieu 2020 & Happy New Year 2021

2020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31.(목) 10: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새해를 여는 천상의 소리

빈 소년 합창단 2021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1.1.23.(토)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문화 | 중극장 2021.2.21.(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10,000원



마티네 콘서트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나의 기타 이야기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문화 | 중극장 4.24.(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동요, 클래식이 되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문화 | 중극장 5.29.(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바이올린 로망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문화 | 중극장 7.31.(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드라마틱 플루트 <플루티스트 필립 운트>

문화 | 중극장 8.28.(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베토벤, 영웅이 되다 <피아니스트 홍민수>

문화 | 중극장 10.30.(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이응광>

문화 | 중극장 12.8.(화) 11:00am
All Seats 10,000원



오페라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
2020 부산오페라 Week * 패키지 제외

문화 | 대극장 & 중극장 10.10.(토)~10.18.(일)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5: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SCC 우수레퍼토리 앵콜공연
오페라 <리골레토> * 패키지 제외

문화 | 대극장 2021.2.26.(금)~2.27.(토) 7:3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국악 / 창극

세계를 누비는 컨템포러리 국악 그룹
블랙스트링 ▶ 관객객 온라인 생중계

시민 | 소극장 4.23.(목) 목 7:3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원작보다 강하다!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문화 | 대극장 7.17.(금)~7.18.(토) 금 7:30pm 토 3:0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킹스턴 루디스카 x 연희컴퍼니유희
유희스카

문화 | 중극장 11.5.(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콘서트 / 탱고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0 디즈니 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9.(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피아졸라 탱고 앙상블의 진수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취소>

문화 | 중극장 9.24.(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Hopeful Tomorrow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패키지 제외

문화 | 대극장 11.26.(목)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 20,000원



“응답하라 1988” 드라마 OST 오리지널 밴드
<동물원 콘서트>

시민 | 소극장 12.4.(금)~12.5.(토) 금 7:30pm 토 5:00pm
R 55,000원 S 44,000원 * 패키지 제외



무적전설
이승환 30주년 콘서트 * 패키지 제외

시민 | 대극장 12.19.(토)~12.20.(일) 토 6:00pm 일 5:00pm
V 154,000원 R 132,000원 S 110,000원 A 99,000원



아트서커스

한 편의 완벽한 서커스 드라마
세븐 핑거스 <여행자> <취소>

문화 | 대극장 6.12.(금)~6.13.(토) 금 7:30pm 토 3:0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지역프로젝트

한여름밤의 실내악 축제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챔버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 & 챔버홀 8.15.(토)~8.29.(토)
평일 7:30pm 주말 및 공휴일 5:00pm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

문화 | 중극장 9.3.(목)~9.5.(토)
목·금 10:30am, 1:30pm 토 11:00am, 2: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문화재단 공동기획
2020 부산 브랜드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문화 | 중극장 11.14.(토)~11.15.(일) 3: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문화재단 공동기획
2020 부산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사업 선정작

문화 | 중극장 11.28.(토)~11.29.(일) 3: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어린이 / 가족

범인을 찾아라!
<프랭키와 친구들>

문화 | 사랑채 7.1.(수)~8.2.(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극단 학전 & 김민기 연출의 스테디셀러 가족극
<우리는 친구다>

시민 | 소극장 7.3.(금)~7.4.(토) 금 10:00am
토 11:00am, 3:00pm / R 30,000원 S 20,000원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방귀쟁이 며느리>

문화 | 사랑채 8.27.(목)~10.25.(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EBS 번개맨 20주년 기념대작
뮤지컬 <번개맨>

시민 | 대극장 9.12.(토)~9.13.(일)
토 11:00am, 2:00pm, 4:30pm 일 11:00am, 2:00pm
R 60,000원 S 50,000원 * 패키지 제외



세 마리 펭귄의 우정 이야기
<8시에 만나>

문화 | 사랑채 11.10.(화)~12.13.(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시립예술단 2020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교향악단 _ 정기연주회

제558회 정기연주회
New Year's Concert
2020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6.(목)~1.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59회 정기연주회
French Nuance
프랑스식 뉘앙스 [잠정연기]

문화 | 대극장 2.14.(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0회 정기연주회
Bohemian Groove
보헤미안 [잠정연기]

문화 | 대극장 3.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1회 정기연주회
Baroque to Classical
바로크에서 고전까지 [잠정연기]

문화 | 중극장 3.2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2회 정기연주회
Cheers!
짠! [잠정연기]

문화 | 대극장 4.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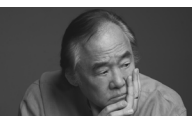
제563회 정기연주회
모호함과 확고함 [취소]

문화 | 중극장 5.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공연인 '미완성음악회'로 대체



제564회 정기연주회
BPO meets Kun-Woo Paik
거장의 레제로

문화 | 대극장 6.19.(금)~20.(토) 금 7:30pm 토 5:0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5회 정기연주회
O Sole Mio
이탈리아 음악휴가

문화 | 대극장 7.21.(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6회 정기연주회
Again, R.Strauss! I
부산시향의 슈트라우스 아게인! I

문화 | 대극장 9.23.(수)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7회 정기연주회
unique
개성

문화 | 대극장 10.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8회 정기연주회
Frame
틀

문화 | 중극장 11.10.(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9회 정기연주회
Shostakovich's 7th Symphony
부산시향의 쇼스타코비치

문화 | 대극장 11.24.(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70회 정기연주회
Beethoven's 250th Birthday in Busan
송년음악회 - 해피벌스데이, 루트비히!

문화 | 대극장 12.17.(목)~12.18.(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교향악단 _ 기획음악회

BPO Thanks Concert
부산시향의 感謝 감사 [취소]

문화 | 중극장 2.24.(월)~2.25.(화) 2:00pm
All Seats 5,000원



BPO Open Door Concert
부산시향의 나눔 [취소]

문화 | 중극장 3.26.(목) 11:00am, 4:00pm
All Seats 5,000원



BPO Chamber Music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문화 | 챔버홀 4.29.(수) 7:30pm
All Seats 10,000원
▶ 무관객 공연 온라인 생중계



BPO Family Day
부산시향의 가족음악회

문화 | 대극장 5.29.(금)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Open Rehearsal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문화 | 중극장 6.17.(수) 7:30pm
All Seats 5,000원



BPO Romantic Night
부산시향의 로맨스

문화 | 중극장 7.7.(화)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Youth Concert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 친구

문화 | 대극장 8.11.(화) 3:30,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Kids Concert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중극장 9.10.(목)~9.11.(금) 11:00a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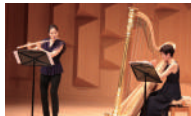
BPO & Young Solists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10.8.(목) 7:30p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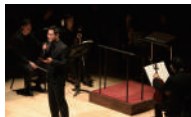
BPO Chamber Music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문화 | 챔버홀 10.30.(금)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Night Lab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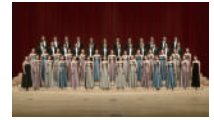
문화 | 중극장 12.9.(수) 9:00pm
All Seats 10,000원



합창단 _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합창시리즈 II
현대 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취소]

문화 | 대극장 3.31.(화)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79회 정기연주회 및 호국의 달 기념 연주회
이기선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문화 | 대극장 6.2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81회 정기연주회
최석태 부산 칸타타 & 창작합창곡

문화 | 대극장 9.22.(화)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82회 정기연주회
2020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17.(목)~12.18.(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합창단 _ 특별연주회

전래동요에 의한 가족 음악극
옛날 옛적에 [취소]

문화 | 중극장 5.21.(목)~5.2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합창으로 만나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문화 | 중극장 5.2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가요합창음악회 2020 Summer Fantasy
Romantic Concert - 김동률 편

문화 | 대극장 7.23.(목) 8:00pm
R 20,000원 S 10,000원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10.19.(월)~10.22.(목) 6:00pm
All Seats 무료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 [취소]

문화 | 대극장 11.20.(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무용단 _ 정기공연

제81회 정기공연
**수석안무자 선정공연 2
<Odyssea FE2020b>**

문화 | 대극장 7.30.(목)~7.31.(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제82회 정기공연
예술감독 취임공연

문화 | 대극장 11.5.(목)~1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 2013년 무용공연 작

무용단 _ 특별공연

특별공연
2020 우리춤 산책

문화 | 사랑채 5.7.(목)~5.8.(금) 7:30pm
All Seats 5,000원
▶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



특별공연
2020 춤추는 동화 [취소]

문화 | 사랑채 5.11.(월)~5.22.(금)(토, 일 제외) 11:00am
※단체공연에 한함



특별공연
2020 안무가 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문화 | 중극장 8.20.(목) 7:30pm
All Seats 5,000원



국악관현악단 _ 정기연주회

제205회 정기연주회
**중견 해금연주자를 위한
협연의 밤 시리즈 I [취소]**

문화 | 대극장 2.25.(화) 7:30pm
R 10,000원, S 5,000원



제205회 정기연주회
김종욱 제9대 수석지휘자 취임 연주회

문화 | 대극장 5.30.(토) 5:00pm
R 10,000원, S 5,000원



제206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 '화평음악회'

문화 | 중극장 6.26.(금) 8:00pm
R 10,000원, S 5,000원



제207회 정기연주회
창작실내악

문화 | 챔버홀 11.25.(수) 8:00pm
All Seats 10,000원



제208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3.(수) 8:00pm
R 10,000원, S 5,000원



국악관현악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신년다례연(新年茶礼宴)

문화 | 대극장 2.4.(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雅樂의 밤

문화 | 챔버홀 5.21.(목) 8:00pm
All Seats 10,000원



특별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중극장 7.14.(화) 8: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문화 | 대극장 8.12.(수) 8: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9.25.(금) 8:00pm
All Seats 2,000원



특별연주회
'풍류' 명가·명창·명무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0.(화) 8:00pm
R 10,000원, S 5,000원



극단 _ 정기공연

제67회 정기공연
벚꽃동산 [취소]
시민 소극장 4.6.(월)~4.11.(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10,000원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문화 대극장 7.3.(금)~7.12.(일)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20,000원



제69회 정기공연
체흐의 이야기
시민 소극장 11.12.(목)~11.14.(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10,000원



극단 _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뮤지컬 '피터팬' [취소]
금정 대공연장 8.22.(토)~8.23.(일) 5: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공연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취소]
문화 사랑채 4.16.(목)~5.4.(월)
평일 11:00am / 주말 3:00pm
5.5.(화) 11:00am, 2: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_ 정기연주회

제63회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 [취소]
문화 대극장 4.3.(금) 7:30pm
All Seats 2,000원



제64회 정기연주회
Never Ending Story(주제: 이야기)
문화 대극장 9.11.(금) 7:30pm
All Seats 2,000원



제65회 정기연주회
2020 송년음악회 'Travel to America'
문화 대극장 12.22.(화) 7:3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여름방학 음악회
문화 중극장 8.14.(금) 7:30pm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III - 실내악
문화 챔버홀 10.24.(토)~10.25.(일) 7:30pm
All Seats 무료



특별연주회
2020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대극장 11.17.(목) 7:3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_ 정기연주회

제157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 Season II [취소]
문화 대극장 5.30.(토) 5:00pm
All Seats 2,000원



제158회 정기연주회
문화 대극장 9.12.(토) 5:00pm
All Seats 2,000원



제159회 정기연주회
Merry Christmas in Love
문화 대극장 12.19.(토) 5:0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_ 특별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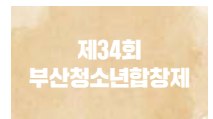
특별연주회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문화 대극장 7.25.(토) 5:00pm
All Seats 2,000원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음악회
교과서 음악회
문화 중극장 8.21.(금)~8.22.(토) 5:00pm
All Seats 2,000원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대극장 11.7.(토)~11.8.(일) 5:00pm
All Seats 무료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0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4월 24일(금), 5월 29일(금), 7월 31일(금),
8월 28일(금), 10월 30일(금), 12월 8일(화)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김준수, 두번째달 '팔도유람' 취소

3월 25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컨템포러리 국악 그룹 '블랙스트링' 취소

4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취소

5월 23(토)-24일(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연극 '여자만세 2' 종료

5월 28일(목) 오후 3:00,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종료

5월 30일(토), 6월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가족극 '우리는 친구다' 종료

7월 3일(금) 오전 10:00, 4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3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연극 '어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종료

8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7월 31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종료

7월 25일(토)-26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5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챔버페스티벌’
8월 15일(토)-29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회당 선착순 20매)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종료
8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S석 20매)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
9월 3일(목)-4일(금) 10:30, 13:30, 5일(토) 11:00, 1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R석 100매)

연극 ‘결혼’(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9월 18일(금) 오후 7:30, 19일(토)-20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S석 20매)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취소
9월 24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십이야(十二夜)’ 종료
9월 26일(토)-27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6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내셔널 투어 종료
10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VIP석 40매)

안은미 컴퍼니 ‘A-드래곤’
12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2020 제아음악회
12월 31일(목)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빈소년합창단 2021 신년음악회 종료
2021년 1월 2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종료
2021년 2월 2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 1인 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607-6116)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성승모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명희 리더스금융판매 워드컨설팅 대표
 신상현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경현 엘가 대표
 이성임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SK증권(주) 이사
 이정일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이진영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영희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충영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진경옥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허 준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현임숙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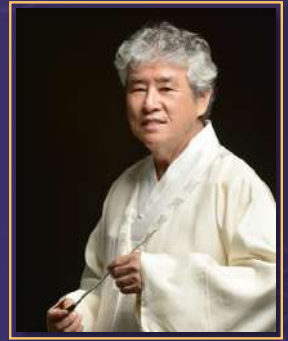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김홍재(010-3560-2511)

명품

재창작관현악



지휘 | 김정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작곡자 | 이정호



작곡자 | 이지영



작곡자 | 이경은



작곡자 | 김성경



협 연 | 박성희(소리)



협 연 | 부산시립합창단 (강종철, 김추리, 박성환, 안재형, 오승중, 조성기, 최기호, 최영수)

객 원 | 박수현(신디사이저), 정혜민(콘트라베이스), 장지혜(글로켄슈필)

연주곡목

국악관현악 <바다> 작곡 이정호 | 위촉곡(원곡: 청사포 아침해, 작곡 김기수)

오륙도의 별헤는 밤 작곡 이지영 | 위촉곡(원곡: 오륙도, 작곡 이강덕)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현악> 주제에 의한 광시곡[강해연가腔海戀歌]

작곡 이경은 | 위촉곡(원곡: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곡, 작곡 이상규)

만선2020 작곡 김성경 | 위촉곡(원곡: 만선, 작곡 황의중), 소리 박성희, 시립합창단

2020. 7. 14(화) 20: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 최 |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주 관 |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 1층 10,000원 2층 5,000원 예 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문 의 | 051. 607. 6000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출발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운행) 공연후 1회운행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부산문화회관 ※공연이 있는 날에 한함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가요합창음악회
BUSAN METROPOLITAN CHORUS

2020

Summer Fantasy

Romantic Concert

김동률 편



2020. 7. 23 (목)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전진 / 연주 부산시립합창단 / 바이올린 박은경 / 기타 황보승 / 베이스기타 김대희 / 드럼 윤민구 **거리두기 좌석제**

※ 본 공연은 싱어송라이터 김동률의 명곡을 부산시립합창단이 노래하는 공연입니다.

주최 :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 R석 20,000원, S석 10,000원 예매 : www.bscc.or.kr 문의 : 607-6000

할인 50% 등록장애인, 다자녀가구, 임신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30% 예술인패스 소지자, 학생(초/중/고/대/대학원), 단체(30명 이상) 2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외국인, 단체(20명 이상)

문화의 거리 명작하는
방방곡곡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극단
골목길

여름은 더럽고 겨울은 기다

박근형 작, 연출

2020년 7월 31일(금)

- 8월 1일(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오후 3시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티켓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15세 이상 입장가능)

문의 및 예매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1번) www.bscc.or.kr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원(50매)	300만원(30매)	100만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요금 할인(회원카드 제시 시 50% 할인)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혜 택	무료 주차권 증정	150매	100매	50매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COUPON



20% Discount

안경나라(동래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Busan Cultural Center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선불카드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부산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

녹 Knock

Odysseia FE2020b

삶의 몸짓이 만드는 깡깡이 울림
그 희망의 서사무(書史舞)

안무
김수현

7월 30일(목) - 31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ww.bscc.or.kr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0. 7.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34번길 4
1588-2757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⑪ 070-755-2188
- ② 624-9776 ⑫ 611-3973
- ③ 626-7111 ⑬ 908-1111
- ④ 611-4241 ⑭ 625-9402
- ⑤ 626-4448 ⑮ 626-2292
- ⑥ 622-7412 ⑯ 010-3996-6498
- ⑦ 611-3589 ⑰ 623-0772
- ⑧ 628-8009 ⑱ 628-3832
- ⑨ 621-7040 ⑲ 714-3559
- ⑩ 621-5788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텐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안경나라(동래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08번길 5
051)505-8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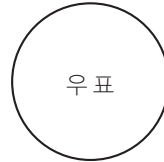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INVITATION TO THE ARTS
2020 07 JULY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한 여름 밤,
셰익스피어가 들려주는
유쾌한 사랑이야기!

한여름 밤의 꿈

*A Midsummer
Night's Dream*

일시 2020. 7.25(토)~26(일) 오후 3시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서울발레시어터

문의 및 예매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1번) www.bscc.or.kr

티켓 R 5만원 S 3만원 A 2만원 (48개월 이상 입장가능)